신유형 정복이
사고력이 필요한 1등급을 좌우합니다.

생활과 윤리는 단순 비교 문제에서
종합적 판단력이 필요한 문제까지
점점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신유형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이스토리는 신유형 문제들의 출제 의도를
철저히 분석해서 문제 풀이에 적용할 개념을 찾고
문제 풀이 순서를 알려주어
신유형 문제에 적응하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등급 고난도 문제들은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를 찾고
단서를 통해 문제를 푸는 '발상'과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 입체 첨삭 해설 시스템으로 문제와 자료를 분석하고,
정답의 근거와 매력적 오답도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수험장 극비 노트]에는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그림, 도표 등으로 수록하였고,
나만의 비법을 노트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이스토리와 함께 한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쯤
여러분은 이미 수능 1등급에 도달해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 No.1 수능 문제집 자이스토리 –



내신+수능 1등급 완성 학습 계획표 [31일]

Day	문항 번호	틀린 문제 / 헷갈리는 문제 번호 적기	날짜	복습 날짜
1	A 01~24		월 일	월 일
2	25~42		월 일	월 일
3	B 01~32		월 일	월 일
4	C 01~34		월 일	월 일
5	D 01~05, E 01~06		월 일	월 일
6	F 01~24		월 일	월 일
7	25~49		월 일	월 일
8	G 01~30		월 일	월 일
9	H 01~32		월 일	월 일
10	33~56		월 일	월 일
11	I 01~24		월 일	월 일
12	25~48		월 일	월 일
13	J 01~21		월 일	월 일
14	K 01~32		월 일	월 일
15	33~48		월 일	월 일
16	L 01~37		월 일	월 일
17	38~43 M 01~29		월 일	월 일
18	N 01~45		월 일	월 일
19	O 01~44		월 일	월 일
20	P 01~41		월 일	월 일
21	Q 01~32		월 일	월 일
22	33~46, R 01~08		월 일	월 일
23	S 01~40		월 일	월 일
24	T 01~39		월 일	월 일
25	U 01~23		월 일	월 일
26	V 01~20		월 일	월 일
27	W 01~24, X 01~17		월 일	월 일
28	Y 01~35, Z 01~40		월 일	월 일
29	모의고사 1~3회		월 일	월 일
30	모의고사 4~6회		월 일	월 일
31	모의고사 7~10회		월 일	월 일



• 나는 _____ 대학교 _____ 학과 _____ 학번이 된다.

• 磨斧作針 (마부작침)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하는 말)

자이스토리 생활과 윤리 활용법+α

❶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 선택지로 개념을 꼼꼼히 체크!

- 수능에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를 통해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혔는지 테스트합니다.
- 출제 2025 대비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경향을 알려줍니다.



❷ 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

- 고난도 문제로 나오는 유형과 해당 문제를 푸는 단서, 발상, 적용법을 알려줍니다.
- 간단한 빈칸 채우기를 통해 특강을 읽으면서 함께 풀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❸ 개념별 기출 문제 풀이로 수능 실전력을 높이자!

- 수능 문제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기출 문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개념과 선택지의 문장을 파악합니다.

❹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는 단원별 학습이 끝난 후에 풀어 보세요.



- 실제 시험을 치를 때와 동일한 조건으로 풀어서 자신이 취약한 유형을 파악하고, 시간을 안배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등급컷으로 객관적 실력도 체크!)
- 모의고사를 푼 후에는 오답노트를 작성해서 틀린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확인하세요.

❺ 1등급, 고난도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로 마스터하세요!

-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단서', 풀이의 '발상', 문제에 '적용'하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왜 틀렸나', '시간 단축 tip', '문제풀이 tip'을 통해 실전에 바로 활용하는 tip을 알려줍니다.

❻ 쉽게 이해되는 입체 첨삭 해설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



- 정답만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나 찍어서 맞은 문제 등은 꼭 다시 푸세요.
- 해설에 제시된 정답의 단서를 파악하고, 함정, 주의, 꿀팁에 대한 설명도 놓치지 마세요.

❼ [수험장 극비 노트]로 수험장 1등급 비법을 꼭 챙기세요!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과 출제 유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나만의 비법 노트'에 자주 헷갈리는 내용을 쓰고 단권화 노트로 사용하세요.

단원별 핵심 개념 + 최신·중요 문제 동영상 강의 QR코드

1.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 내용을 동영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2. 해설과 다른 풀이를 알고 싶을 때 확인해 보세요!
3. 긴 시간 혼자서 공부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질 때 사용해 보세요!
4. 강의를 통해 어려운 분배적 정의, 동·서양의 자연관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문제 풀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차 례

최신 문제 우선 배치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1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

B 동양 윤리적 접근 2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

C 서양 윤리적 접근 37
1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2 덕 윤리적 접근과 도덕 과학적 접근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40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4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1

Ⅱ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5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5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56

F 죽음과 윤리 58
1 죽음의 윤리적 의미와 삶의 가치
2 자살과 안락사, 뇌사의 윤리적 쟁점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6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61

G 생명 윤리 74
1 생명과 관련한 윤리적 쟁점
2 동물 실험과 동물 권리의 문제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7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77

H 사랑과 성 윤리 86
1 사랑 · 성의 의미와 윤리적 문제
2 결혼과 가족의 윤리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8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89

Ⅲ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04
1 동서양의 직업관
2 직업 윤리의 의미와 기업가 · 근로자 윤리
3 전문직과 공직자 윤리 및 부패와 청렴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0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07

J 사회 윤리와 정의 11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21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2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2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30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143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144

L 교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14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4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50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62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63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고난도 대비] 166
1 국가 권위의 정당성
2 시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67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68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74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75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고난도 대비] 177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7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79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187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188
• 한눈에 보는 사상가 비교(롤스와 노직) 192

Ⅳ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194
1 과학 기술의 의미와 가치중립성 논쟁
2 과학 기술의 사회적 책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196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197

P 정보 사회와 윤리 20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1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11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222
1 동양의 자연관
2 서양의 자연관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24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25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236
1등급 대비 기출 문제 237

R 환경 문제와 윤리 24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4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44
• 한눈에 보는 사상가 비교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246

Ⅴ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248
1 예술과 윤리의 관계
2 대중문화의 윤리적 문제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5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51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261
1 의식주 윤리
2 윤리적 소비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6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64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274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75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76

V 종교와 윤리 28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8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84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290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292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293

X 민족 통합의 윤리 299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0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1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306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08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09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고난도 대비] 318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319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320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330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 331

Special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생활과 윤리 등급컷 수록 333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334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338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342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346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350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354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358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362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66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370

빠른 정답 찾기 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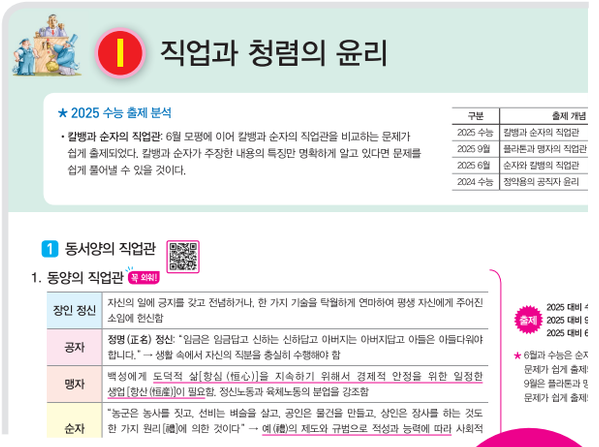
중요 · 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개념 총정리 + 1등급 대비 문제 특강으로 수능 1등급 완성

1 최신 수능 출제 경향 분석 + 개념 총정리

교과서 순서에 따라 개념을 총정리하고, 수능 출제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수능과 6월, 9월 모평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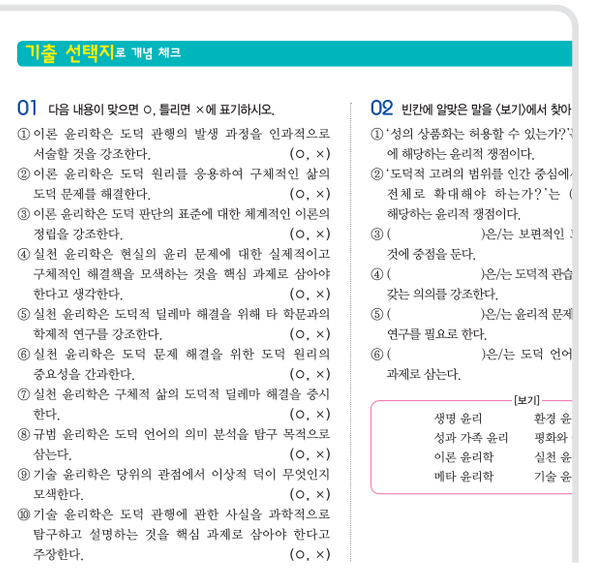
- **출제 경향 분석:** 2025 대비 수능 출제 분석
- 출제 2025 대비 수능, 6·9월 모평 문제를 분석하여 최신 출제 경향 제시
- **꼭 외워!:** 각 단원에서 반드시 암기할 내용 총정리
- **QR코드:** 단원별 핵심 개념 + 문제 풀이법 동영상 강의



2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 실제 수능 선택지와 자료로 구성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된 자료와 선택지로 학습한 개념을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정답 및 해설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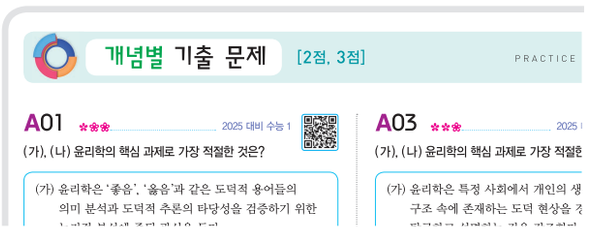


3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동영상 강의 개념+중요 문제 QR코드

개념 순서와 단계별 난이도로 문제를 배치하여 효율적인 개념 적용 훈련과 기출 문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주제별 배열:** 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제를 세분화해서 문항 배열
- **QR코드:** 단원별 핵심 문제 동영상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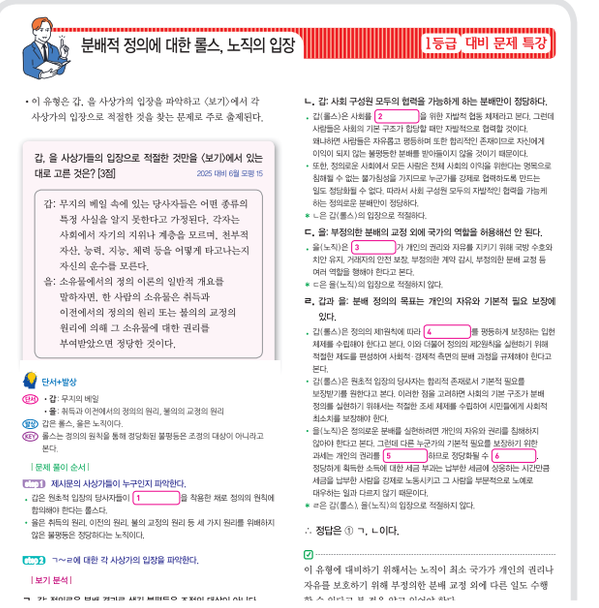
- 난이도 : ★★★ – 상, ★★❀ – 중, ★❀❀ – 하, 1등급, 고난도

- 출처표시 : 수능, 평가원 – 대비연도, 학력평가 – 실시연도
  - 2024 실시 3월 학평 20 : 2024년 3월에 실시한 학력평가
  - 2025 대비 9월 모평 20 : 2024년 9월에 실시한 모의고사
  - 2025 대비 수능 20 : 2024년 11월에 실시한 수능

4 1등급,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고난도 문제를 푸는 단서 + 발상, 적용법, 유형 대비법, 문제 풀이 순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빈칸 채우기:** 특강을 읽으면서 간단한 빈칸 문제를 통해 풀이 방법을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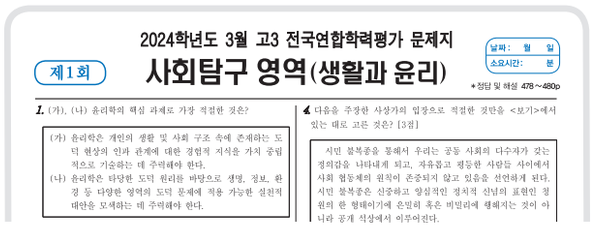


5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수록

실전 대비를 위해 실제 모의고사 원본을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2024년 시행 7회: 전문항
- 2023년 시행 3회: 수능, 6월과 9월 모평

※ 최신 모의고사 10회분 등급컷 수록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날짜: 월 일 / 소요시간: 분

*정답 및 해설 478~480p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지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항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정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별책 부록] 수험장 극비 노트



1 꼭 출제되는 중요 개념 17개 선정
2 문제 풀이 꿀팁
3 나만의 비법 정리

6 1등급 · 고난도 대비 기출 문제와 특별 해설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은 따로 1등급 대비, 고난도 대비로 분리해 수록했습니다.

✪ 1등급 대비 : 정답률이 50% 내외의 1등급을 가르는 최고난도의 문제입니다.

✪ 고난도 대비 : 정답률이 50~60% 내외의 고난도 문제입니다.


Q41 ✪ 1등급 대비 2024 대비 9월 모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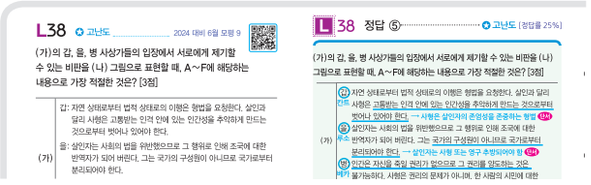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삶와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을: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병: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Q41 정답 ③ ✪ 1등급 대비 [정답률 3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삶와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태일러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
㉡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레오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가) 롤스 ㉢ → 대지 공동체 자체를 도덕적으로 존중
㉣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종 차별주의적 입장을


L38 ✪ 고난도 2024 대비 6월 모평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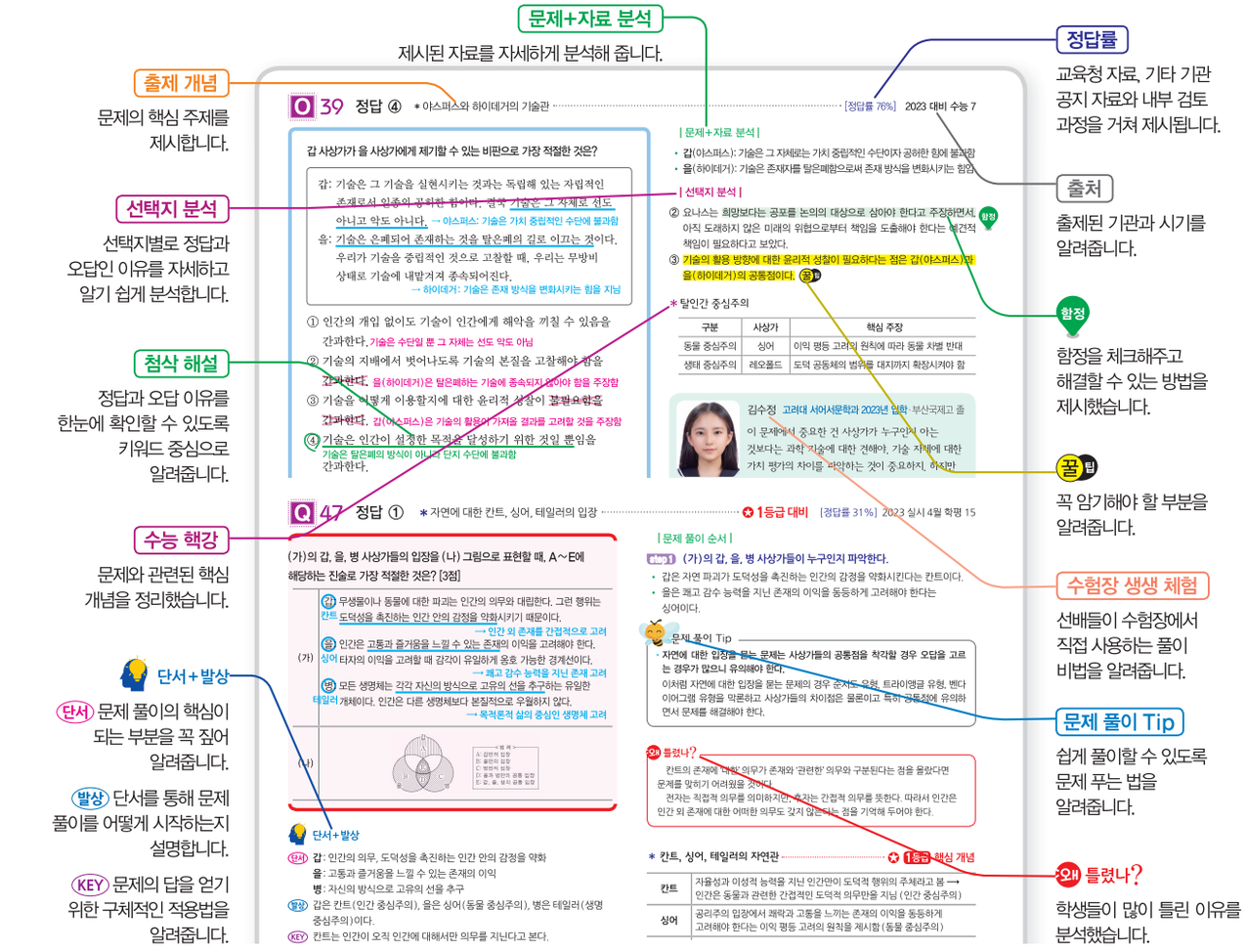
(가) 갑: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정벌을 요청한다. 삶인과 달리 사람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주의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을: 삶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L38 정답 ⑤ ✪ 고난도 [정답률 2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정벌을 요청한다. 삶인과 달리 사람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주의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 사람은 삶인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벌 ✪3↓
㉡ 삶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롤스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삶인자는 사람 또는 영구 추방되어야 함 ✪3↓
㉢ 인간은 자신을 중심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7 입체 첨삭 해설!



집필진 · 감수진 선생님들



자이스토리는 수능 준비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능, 평가원,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로 수록하였으며, 명강의로 소문난 학교·학원 선생님들께서 명쾌한 해설을 입체 첨삭으로 집필하셨습니다.

[집필진]

이현우 서울 당곡고 교사
정선우 인천 대인고 교사
한혜정 경기 고촌고 교사
조승연 서울 장충중 교사

중요·핵심 개념 + 문제 동영상 강의
정선우 선생님

[특별 감수진]

권영수 문경 점촌고등학교
유현상 광양 광양제철고등학교
김부경 서울 명덕고등학교
임동현 음성 대금고등학교

[감수진]

강대성 서울 대입정보학원
강성범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권성현 아산 설화고등학교
김관옥 전주 전주중앙여자고등학교
김대원 서울 광영여자고등학교
김오섭 서울 세화고등학교
김윤환 서울 영훈고등학교
김은지 순천 순천여자고등학교
김정준 고양 중산고등학교
김지혜 대전 유성여자고등학교
김학수 서울 네오스터디학원
김 현 부산 패스아카데미재수학원
김효정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나상윤 서울 노스코사회탐구학원
노국종 서울 강동고등학교
노연정 서울 강명중학교
류우정 부산 화명미래탐구학원
문영주 대구 청운입시학원
박은미 서울 금천고등학교
박준희 양산 경남외국어고등학교
박진경 창원 창원남고등학교
선찬란 대구 이든학원
설규웅 고양 안곡고등학교
성지윤 창원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송남용 성남 숭신여자고등학교
양우석 서울 상문고등학교
오길호 서울 하나학원
유영진 부산 센텀중학교
윤정은 대구 대구제일중학교
이나경 서울 강서고등학교
이동규 서울 수명고등학교
이명희 인천 아라고등학교
이보람 서울 현대고등학교
이선유 의정부 금오중학교
이수균 울산 이수사회과학국어전문학원
이시화 용인 기흥고등학교
이진희 대구 지니사회
임종모 속초 설온중학교
장연정 창원 진해세화여자고등학교
장지훈 서울 강서고등학교
정경숙 부산 남천성문학원
정성재 부산 대신적토마학원
정은주 서울 서강학원
정일출 가평 가평고등학교
주미림 속초 속초여자고등학교
지창현 대구 학문당
진대종 대구 찐한사회
최규범 경산 경산여자고등학교
최성영 대전 뉴메카학원
최승규 부산 신정고등학교
최화윤 서울 강동학원
황영미 대구 멘토사탐

수능 선배들의 비법 전수 – 수험장 생생 체험 소개

긴장되고 떨리는 수험장에서 선배들이
문제를 풀면서 겪은 생생한 체험과 나만의 풀이 비법을
자이스토리 해설편에 수록했습니다.



2025 응시



강다은
대구 계성고 졸업
– 문학 실전



김강민
광주 국제고 졸업
– 세계지리



김덕우
부산 해운대고 졸업
– 지구과학Ⅱ



김연우
대구 정화여고 졸업
– 화학Ⅰ



김효원
제주 제일고 졸업
– 고3 미적분



박서영
부산 금곡고 졸업
– 사회·문화



박정빈
대구 남산고 졸업
– 생활과 윤리



배지오
성남 낙생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백승준
광주 광주숭일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서정후
광주 숭덕고 졸업
– 지구과학Ⅰ



성예현
대전 대전전민고 졸업
– 언어와 매체 실전



안한민
익산 남성고 졸업
– 화법과 작문 실전



오현준
서울 한영고 졸업
– 생명과학Ⅱ



윤혁준
서울 강서고 졸업
– 생명과학Ⅰ



이예슬
서울 독산고 졸업
– 동아시아사



이정근
안양 평촌고 졸업
– 기하



이지원
대구 성화여고 졸업
– 고3 수학Ⅰ, 고3 수학Ⅱ



임지호
부산 동아고 졸업
– 물리학Ⅰ



장윤서
부산 사직여고 졸업
– 독서 실전



정규원
부산 남성여고 졸업
– 고3 확률과 통계



최승우
광주 광주서석고 졸업
– 화학Ⅱ



최아람
서울 광영고 졸업
– 윤리와 사상



최여진
광주 국제고 졸업
– 한국지리



한규진
대구 계성고 졸업
– 독해 실전, 어법·어휘 실전



한상효
성남 낙생고 졸업
– 수능 한국사



한성은
익산 남성여고 졸업
– 고3 수학Ⅰ, 고3 수학Ⅱ

• 2024년

곽지훈 서울 한영외고 졸(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권민재 서울 광영여고 졸(강릉원주대 치의예과)
김동현 안성 안법고 졸(연세대 실내건축학과)
김서현 대전한빛고 졸(카이스트 새내기과정학부)
김신유 익산 남성고 졸(순천향대 의예과)
김아린 대전한빛고 졸(충남대 의예과)
김용희 화성 화성고 졸(단국대 의예과)
김지희 광주 국제고 졸(고려대 한국사학과)
김태현 부산 대연고 졸(서울대 수리과학부)
류이레 광주대동고 졸(연세대 의예과)
문지민 대구 정화여고 졸(고려대 중어중문학과)
변준서 화성 화성고 졸(연세대 실내건축학과)
심기현 대구 계성고 졸(경북대 의예과)
오서윤 서울 광문고 졸(충남대 의예과)
진성연 부산국제고 졸(서울대 사회학과)
조수근 성남 태원고 졸(순천향대 의예과)

• 2023년

강 한 서울 배재고 졸(고려대 융합에너지공학과)
권주원 서울 배재고 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김보겸 광주서석고 졸(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김수정 부산국제고 졸(고려대 서어서문학과)
김준서 부산 대연고 졸(부산대 의예과)
김태산 광주서석고 졸(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현서 경기 평택고 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나인규 광주 국제고 졸(한양대 경영학과)
명준하 광주서석고 졸(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박서영 부산 해운대고 졸(서울대 심리학과)
박세민 광주 광덕고 졸(서울대 의예과)
장경은 서울 세화여고 졸(고려대 통계학과)
장성욱 부산 대연고 졸(동아대학교 의예과)
정서린 서울 세화여고 졸(서울대 약학과)
조현준 익산 이리고 졸(전북대 의예과)
최윤성 서울 양정고 졸(서울대 공과대학 광역)
홍채연 서울 한영고 졸(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문항 배열 및 구성 [1071제+개념 체크 문제 591제]

❶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문제 [591제]

- 개념 하나하나에 대한 확인 문제를 제시하여 개념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❷ 최신 5개년 수능+6, 9월 모평+고3 학력평가 전문항 수록 [700제]

- 새교육과정에 해당하는 5개년 35회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했습니다.

❸ 새교육과정에 꼭 맞는 수능+6, 9월 모평+고3, 고2 학력평가 문제 수록 [171제]

- 새 수능 출제 기준에 적합한 기출문제들을 모두 수록했습니다.

❹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200제]

- 2024년 7회: 전회차 수록
- 2023년 시행 3회: 수능, 6월 모평, 9월 모평 수록
- 회차별 등급컷(원점수, 표준점수) 수록

[생활과 윤리 수록 문항 구성표]

대비연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합계	비고
2025	20	20	20	20	20	20	20	140	
2024	20	20	20	20	20	20	20	140	*전문항 수록 (문제 특강 6문항 포함)
2023	20	20	20	20	20	20	20	140	
2022	20	20	20	20	20	20	20	140	
2021	20	20	20	20	20	20	20	140	
2020	9	10	10	15	14	11	10	79	
2019	7	6	6	5	8	7	10	49	*새교육과정 선별 수록
2019 이전	42							42	
고2	1							1	
총 문항 수								871	연도별 모의고사 200

2025 대비 6월, 9월 모평+수능

생활과 윤리 문항 배치표

문항 번호	6월	9월	수능
1	A 03	A 05	A 01
2	E 01	F 05	G 01
3	W 01	V 02	S 01
4	C 21	T 01	F 01
5	O 04	G 24	V 01
6	T 25	Q 05	O 17
7	M 11	K 03	P 01
8	S 31	O 18	I 01
9	Q 06	특강 174쪽	Q 27
10	Y 02	K 01	M 22
11	F 03	C 04	B 01
12	Z 01	N 01	S 30
13	U 01	I 02	O 01
14	N 32	P 05	Z 35
15	특강 143쪽	L 05	K 42
16	I 05	B 11	L 35
17	P 07	S 04	C 01
18	H 01	Y 06	N 33
19	L 36	Z 37	Y 01
20	B 03	X 01	X 02

I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B 동양 윤리적 접근

C 서양 윤리적 접근

1 의무론적 접근과 공리주의적 접근

2 덕 윤리적 접근과 도덕 과학적 접근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 2025 수능 출제 분석

•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핵심 과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두 가지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는 1번 문항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되므로, 각 윤리학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구분	출제 개념	난이도
2025 수능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
2025 9월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
2025 6월	기술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	✻✻
2024 수능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	✻

1. 윤리의 의미[1]와 특징

의미	인간의 무리에서 지켜야 할 도리
특징	• 도덕적 행위를 주된 탐구 대상으로 삼음 • 도덕적 행위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준을 밝히고자 노력함 •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음

2. 윤리학의 구분

(1) **규범 윤리학**: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을 탐구하고, 도덕적 문제의 해결과 실천 방안을 제시함 ➡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으로 구분

① 이론 윤리학

의미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현실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윤리학
목적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함
역할	도덕 원리를 정당화하거나 도덕 원리의 근거를 제시함
주요 주제들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등 예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

② 실천 윤리학

의미	다양한 도덕 원리를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에 적용하는 윤리학
목적	이론 윤리학을 적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함
역할	• 여러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바탕으로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도덕적인 해결책을 모색함 예 생명 윤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심리학과 생명 과학, 통계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함 • **학제적**[2] **성격**: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함께 탐구함 • **실천적 성격**: 이론 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활용하여 삶의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 주제들	생태계에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 예 생태 윤리, 정보 윤리 등

출제 2025 대비 수능 1번
2025 대비 9월 모평 1번
2025 대비 6월 모평 1번

★ 6월은 기술 윤리학과 이론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보통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9월은 이론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수능은 메타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의 입장을 비교하는 문제가 쉽게 출제되었다.

[1] 윤리의 의미

동양	인간 집단이나 무리[倫]와 이치나 도리[理]가 합쳐진 말로,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뜻함
서양	그리스어 '에토스(ethos)'에서 유래한 말로, 사회의 풍습이나 관습, 개인의 성품을 뜻함

[2] 학제적
둘 이상의 전문 분야에 걸친 학문상의 영역 및 그와 같은 영역의 연구에 관련된 것

이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비교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20년 6월 평가원]

↳ 이론 윤리학은 윤리적 판단과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화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실천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윤리학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생명, 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도덕적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아야 한다. [2021년 6월 평가원]

↳ 실천 윤리학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 문제들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이론 윤리학과 차이가 있다.

기출 선택지로 개념 체크

01 다음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에 표기하시오.

① 이론 윤리학은 도덕 관행의 발생 과정을 인과적으로 서술할 것을 강조한다. (○, ×)
② 이론 윤리학은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구체적인 삶의 도덕 문제를 해결한다. (○, ×)
③ 이론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표준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의 정립을 강조한다. (○, ×)
④ 실천 윤리학은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
⑤ 실천 윤리학은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타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강조한다. (○, ×)
⑥ 실천 윤리학은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
⑦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 삶의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중시한다. (○, ×)
⑧ 규범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탐구 목적으로 삼는다. (○, ×)
⑨ 기술 윤리학은 당위의 관점에서 이상적 덕이 무엇인지 모색한다. (○, ×)
⑩ 기술 윤리학은 도덕 관행에 관한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
⑪ 기술 윤리학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이상에 대한 규범적 탐구를 간과한다. (○,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간과한다. (○, ×)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간과한다. (○, ×)
⑭ 메타 윤리학은 도덕 이론의 정립보다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을 강조한다. (○, ×)
⑮ 메타 윤리학은 '선의의 거짓말과 관련된 도덕적 딜레마의 논리적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심을 갖는다. (○, ×)
⑯ 메타 윤리학은 도덕적 담론의 논증 구조에 대한 논리적 분석을 강조한다. (○, ×)

02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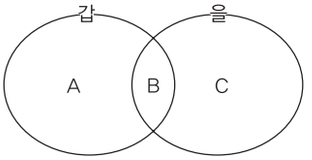
① '성의 상품화는 허용할 수 있는가?'는 (　　)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②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 중심에서 동물, 생명, 생태계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가?'는 (　　)에 해당하는 윤리적 쟁점이다.
③ (　　)은/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④ (　　)은/는 도덕적 관습에 관한 경험적 서술이 갖는 의의를 강조한다.
⑤ (　　)은/는 윤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⑥ (　　)은/는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보기]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성과 가족 윤리	평화와 공존 윤리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03 갑, 을의 입장에 맞게 A / B / C에 표시하시오.

[갑: 메타 윤리학, 을: 기술 윤리학]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① 도덕 문제를 가치중립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A / B / C)
② 윤리학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A / B / C)
③ 특정 시대의 관습, 사회 규범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한다. (A / B / C)
④ 도덕규범의 현실적 적용과 구체적 대안 제시를 경시한다. (A / B / C)

정답

01 ① ×(기술 윤리학) ② ×(실천 윤리학) ③ ○ ④ ○ ⑤ ○ ⑥ ×(강조함) ⑦ ○ ⑧ ×(메타 윤리학) ⑨ ×(이론 윤리학) ⑩ ○ ⑪ ○ ⑫ ×(기술 윤리학은 도덕규범이 형성된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함) ⑬ ×(메타 윤리학은 도덕 언어에 함축된 의미 분석이 윤리학의 주된 목적임을 강조함) ⑭ ×(실천 윤리학) ⑮ ○ ⑯ ○

02 ① 성과 가족 윤리 ② 환경 윤리 ③ 이론 윤리학 ④ 기술 윤리학 ⑤ 실천 윤리학 ⑥ 메타 윤리학

03 ① B ② A ③ C ④ B

개념별 기출 문제 [2점, 3점]

PRACTICE QUESTION

A01 ❀❀❀ 2025 대비 수능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좋음', '옳음'과 같은 도덕적 용어들의 의미 분석과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에 주된 관심을 둔다.
(나) 윤리학은 도덕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둔다.

① (가): 다양한 문화권의 관행을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② (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목적을 제공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이론에 사용되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는 것이다.
④ (나):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A02 ❀❀❀ 2024 실시 5월 학평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그 문제들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명제에 대한 추론이나 판단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가): 현실의 도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② (가): 도덕 현상들 간의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③ (나):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④ (나): 각 공동체의 다양한 도덕 관행을 비교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탐구하는 것이다.

A03 ❀❀❀ 2025 대비 6월 모평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특정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경험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다.
(나) 윤리학은 도덕적 관행을 평가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도덕규범의 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강조한다.

① (가): 현실의 구체적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가): 각 문화권의 도덕 현상을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적 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적 추론과 합리적 논증의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다.

A04 ❀❀❀ 2024 실시 7월 학평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원리의 체계를 구성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신념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① 도덕적 관행을 경험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②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③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④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가치 판단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 정답 및 해설 2~3p



베카리아와 칸트의 교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파악한 뒤 〈보기〉에서 적절한 선지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4 대비 9월 모평 9

갑: 법은 개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보기]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일반 의사, 사회 계약
• **을**: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 정언 명령

발상 갑은 베카리아, 을은 칸트이다.

KEY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와 지속도 모두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 갑은 법이 일반 의사를 대표하며 사형은 [1] 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본 베카리아이다.
• 베카리아는 개인들이 사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자유 중 최소한의 것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의사를 수립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대한의 가치를 갖는 생명은 양도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 않는다.
• 을은 형벌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벌의 법칙은 일종의 정언 명령이라고 본 칸트이다.
• 칸트는 형벌이 범죄 예방과 같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2] 의 대가로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정의가 요구하는 바이자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정언 명령이다.

step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이 〈보기〉의 ㄱ~ㄹ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 갑(베카리아)은 형벌의 목적이 범죄자가 시민들에게 새로운 해악을 입힐 가능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형벌은 인간의 정신에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인상을 만들어 내면서도 범죄자에게는 최소한의 고통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 그런데 형벌의 [3] 보다 [4] 가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끼친다. 강력하지만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형벌보다는 미약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고통을 제공하는 형벌이 더 큰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사형보다 [5] 이 인간 정신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 갑(베카리아)은 종신 노역형이 범죄자보다 범죄자를 바라보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산출한다고 본다. 범죄자를 구경하는 시민들은 범죄자가 순간마다 겪는 고통의 합산을 고려하며 범죄자의 미래가 끔찍한 고통으로 채워질 것을 떠올린다. 반면, 범죄자는 눈앞의 고통에 사로잡혀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 을(칸트)은 도덕적 인격으로서 인간이 이성으로 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범법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약속을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형벌은 범죄자에게 무조건 부과되어야 하는 정언 명령이자 도덕적 선이 된다.
• 범죄자는 형벌을 받는 과정에서 형벌로 고통받겠지만, 동시에 그의 존엄성이 실현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 인격으로서 행위했기 때문이다.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갑(베카리아)은 사형이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력의 측면에서도 종신 노역형보다 열등하다고 본다. 물론 사형은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 줌으로써 범죄 억제에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다.
• 을(칸트)은 형벌이 범죄자 자신이나 사회적 선을 위한 한낱 [6] 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욕했으므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형벌의 정도는 범죄 행위에 [7] 해야 한다. 따라서 살인자의 살인 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은 오직 사형뿐이다.

∴ **정답은 ③ ㄴ, ㄹ이다.**

☑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형벌의 범죄 억제력은 강도와 지속도 모두에서 나온다고 보았다는 베카리아의 입장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정답] 1 사형 계약 2 응보 3 강도 4 지속도 5 종신 노역형 6 수단 7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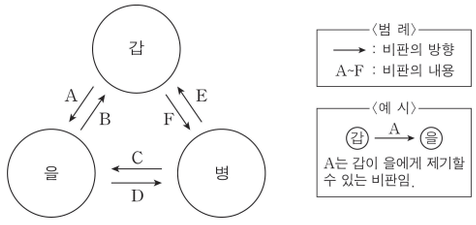
L35 ✪ 고난도 2025 대비 수능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을: 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병: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



① A: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② B: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③ C와 E: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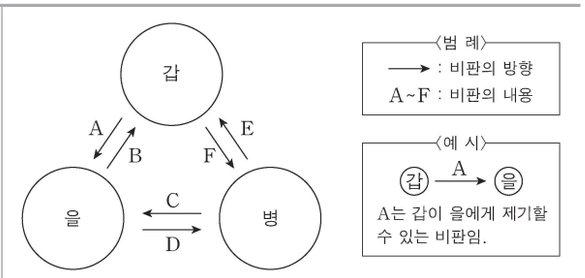
L36 ✪ 고난도 2025 대비 6월 모평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을: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병: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

(나)



① A와 F: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② B: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③ C: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D: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⑤ E: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L37 ✪ 고난도 2024 실시 3월 학평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의 산물인 법은 오로지 '최대 다수가 공유하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사형은 잔혹한 형벌로 공공의 선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왜곡이다. 살인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응보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할 수 있다.

[보기]

ㄱ. 갑: 형벌의 목적은 시민의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ㄴ. 갑: 종신 노역형은 시민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이익을 위해서도 집행되어야 한다.
ㄷ. 을: 사형은 살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
ㄹ. 갑과 을: 형벌로 인한 공익이 형벌의 해악보다 커야 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 정답 및 해설 216~218p



칸트, 싱어, 레오폴드의 자연관

1등급 대비 문제 특강

• 이 유형은 제시문 (가)의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 후, (나)의 그림에 맞는 적절한 진술을 찾는 형태로 주로 출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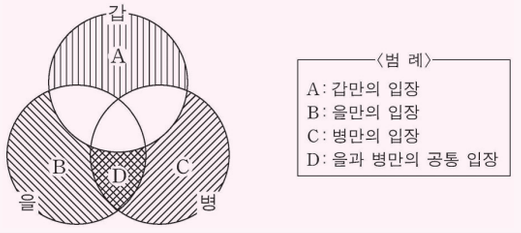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2024 대비 수능 15

(가)

갑: 동물을 폭력적으로 다루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매우 유익한 천성적 소질이 고갈될 수 있다.
을: 어떤 존재가 느끼는 고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는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계산하도록 한다.
병: 경제적 이익 계산의 문제로만 바람직한 대지의 이용을 생각하지 말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나)



[보기]

ㄱ.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고통에 대한 공감이 무뎌져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
• **을**: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
• **병**: 대지, 생명 공동체

발상 갑은 칸트, 을은 싱어, 병은 레오폴드이다.

KEY 싱어는 인간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지 않은 식물보다 우월하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 갑은 동물을 학대하면 고통에 대한 공감이 약화되어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칸트이다.
• 을은 '[1]' 고려의 원리'에 따라 한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 싱어이다.
• 병은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의 보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옳다고 본 레오폴드이다.

step 2 〈보기〉의 내용이 (나) 그림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자신에 대한 의무에 부합한다.

• 갑(칸트)은 동물 학대가 인간의 자신에 대한 [2]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간접적 의무를 위반한다고 본다. 동물 학대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다.
• 을(싱어)은 동물 학대 금지가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동물이 대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3] 대상에 해당하므로, 동물 학대 금지는 도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ㄱ은 갑(칸트)만이 긍정하므로 A에 해당한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행위자임을 판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을(싱어)은 [4]을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본다.
• 병(레오폴드)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 ㄴ은 갑(칸트), 을(싱어), 병(레오폴드)이 모두 부정하므로 B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생태계뿐만 아니라 개별 생명체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태계 자체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ㄷ은 병(레오폴드)만이 긍정하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

• 갑(칸트)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을(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인간이 그렇지 못한 식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대지의 한 [5]이라는 점에서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다고 본다.

∴ **정답은 ② ㄱ, ㄷ이다.**

☑ 이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행위자가 인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도덕적 행위자가 아닌 도덕적 고려 대상의 판별 기준으로 보았음을 숙지해야 한다.

[정답] 1 이익 평등 2 의무 3 도덕적 고려 4 쾌고 감수 능력 5 구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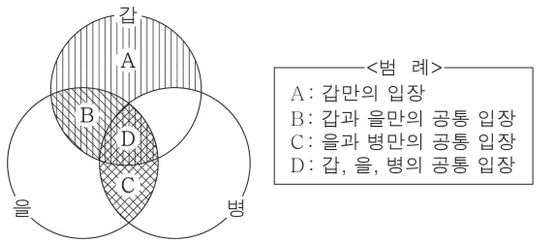
Q33 ✪1등급 대비 2024 실시 3월 학평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따름이다.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간주된다.
병: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나)



<범 례>
A: 갑만의 입장
B: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ㄹ. D: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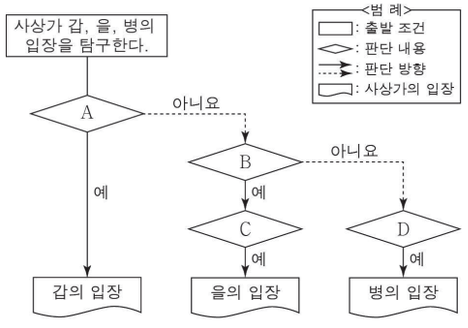
Q34 ✪1등급 대비 2024 실시 5월 학평 10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늙은 말이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을: 기계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병: 동물도 고통의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팽창하는 등 인간의 신경계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나)



[보기]

ㄱ. A: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ㄴ. B: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ㄷ. C: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ㄹ. D: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정답 및 해설 335~336p

★ 생활과 윤리 등급컷

❖ 컷 구분 원점수는 실제 점수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회 [2024년 실시 3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39	69
2	34	64
3	28	57
4	23	52
5	18	47
6	13	41
7	10	38
8	7	35

2회 [2024년 실시 5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7	67
2	42	62
3	38	59
4	33	54
5	26	48
6	18	41
7	12	36
8	9	33

3회 [2024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3	67
2	39	63
3	34	59
4	28	53
5	21	47
6	14	41
7	10	37
8	8	35

4회 [2025년 대비 6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5	67
2	40	63
3	35	58
4	30	54
5	22	47
6	14	40
7	11	37
8	7	33

5회 [2024년 실시 7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9
2	39	64
3	32	58
4	25	52
5	19	46
6	14	42
7	8	36
8	6	35

6회 [2024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4	66
2	38	61
3	36	59
4	31	54
5	24	48
6	16	41
7	10	35
8	8	33

7회 [2025년 대비 9월 모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7	64
2	45	62
3	42	60
4	35	54
5	27	48
6	18	41
7	11	35
8	9	34

8회 [2024년 실시 10월 학평]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7	67
2	43	64
3	38	60
4	28	53
5	17	45
6	11	40
7	8	38
8	6	37

9회 [2024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50	65
2	47	63
3	43	59
4	37	54
5	29	48
6	22	42
7	15	36
8	10	32

10회 [2025년 대비 수능]

등급	원점수	표준점수
1	41	68
2	36	68
3	31	58
4	26	53
5	19	46
6	14	41
7	11	38
8	7	34

Special

★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제한시간: 30분]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회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날짜: 월 일
소요시간: 분

*정답 및 해설 478~480p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 및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나) 윤리학은 타당한 도덕 원리를 바탕으로 생명, 정보,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의 도덕 문제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① (가):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② (가):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성립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③ (나):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④ (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⑤ (가)와 (나): 도덕 추론의 과정이 타당한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달려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 을: 중생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수행을 통해 삼독(三毒)을 끊어내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 보 기 >

ㄱ. 갑: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ㄴ. 을: 중생은 열반에 이르러야 다음 생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ㄷ. 을: 불멸(不滅)을 갈망하는 인간에게는 생사가 반복된다.
ㄹ. 갑과 을: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국가는 국가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명령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한 국가를 다른 국가에 병합시킨다면, 그것은 도덕적 인격체로서의 국가의 지위를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를 물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평화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시키고 보호하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시킬 뿐이다.

① 모든 국가는 이방인에 대한 환대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
② 국가 간 평화 조약으로 국제 사회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된다.
③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되면 안 된다.
④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⑤ 국가의 주권은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 연맹에 양도되어야 한다.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시민 불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이기에 은밀히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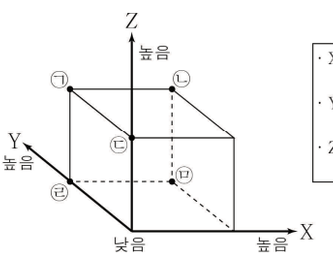
< 보 기 >

ㄱ. 시민 불복종은 항의의 대상이 되는 법을 위반할 때만 정당화된다.
ㄴ.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위해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
ㄷ. 정의의 원칙과 일치하는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ㄹ. 시민의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현저하게 침해한 정책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5.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가)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 이익의 증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모적인 군사비 지출과 같은 문제가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의 경제적 번영이다.
> (나)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해소되어야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분단으로 인한 전쟁 위험은 남북한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구조적 폭력이 지속되는 것이 분단의 더욱 큰 폐해다. 따라서 통일의 궁극적 목표는 한반도 내 모든 폭력의 제거다.



· X: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
· Y: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 Z: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① ㉠ ② ㉡ ③ ㉢ ④ ㉣ ⑤ ㉤

6.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갑 : 옳음으로 말미암아 그릇됨이 있고,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옳음이 있다. 성인(聖人)은 이쪽과 저쪽의 구분에 의거하지 않고 하늘[天]에 비추어 생각한다.
> 을 : 군자(君子)가 인(仁)을 떠나면 어찌 군자라는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남이 없으니, 다급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인에 머문다.

① 마음의 수양을 통해 도(道)를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가?
②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③ 차별 없는 사랑[兼愛]을 인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가?
④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⑤ 성인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가?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갑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르면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냐가 원조의 의무에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는 견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 을 :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원조의 목적이 달성되면, 정의로운 제도들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요구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 보 기 >

ㄱ. 갑 :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ㄴ. 을 : 해외 원조의 목적 달성은 원조 대상국의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ㄷ. 을 : 질서 정연한 사회를 규제하는 모든 정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해야 한다.
ㄹ. 갑과 을 : 해외 원조는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담론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담론 과정에 적절하게 기여하는 한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참여자는 담론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부여받는다. 또한, 의사소통은 외적 강제와 내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①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허용될 수 없다.
② 담론의 과정에서 참여자는 사적인 욕구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
③ 담론 참여자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
④ 담론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만 강제력이 요청된다.
⑤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9.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나는 성적 쾌락 추구 그 자체가 성적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성숙한 성인(成人)들이 상호 동의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결합된 부부 사이에서 출산과 양육을 목적으로 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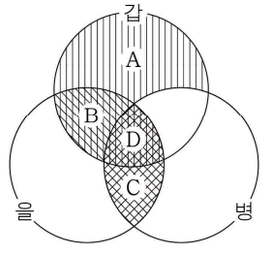
①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는 도덕적 평가 대상이 아님을 간과한다
② 자발적 성적 관계에는 어떤 책임도 부과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③ 생식적 가치 존중 없이 성적 관계 정당화가 가능함을 간과한다
④ 성적 관계의 정당화에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⑤ 사랑하는 사이의 성적 관계도 비도덕적일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 갑 : 동물에 관한 한, 우리는 직접적 의무가 없다. 동물과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일 따름이다.
> 을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면 어떤 존재도 다른 존재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동식물의 선의 실현도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간주된다.
> 병 : 삶의 주체에는 단순히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상이 포함된다. 삶의 주체는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지니며 존중의 태도로 처우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나)



<범 례>
A : 갑만의 입장
B :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C :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보 기 >

ㄱ. A :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
ㄴ. B :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C :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의 이용은 해악보다 이익이 크다면 정당화된다.
ㄹ. D :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만이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차 례

Ⅰ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A 실천 윤리학의 특징 02
B 동양 윤리적 접근 23
C 서양 윤리적 접근 39
D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56

Ⅱ 생명과 윤리

E 삶의 가치와 윤리 59
F 죽음과 윤리 62
G 생명 윤리 87
H 사랑과 성 윤리 102

Ⅲ 사회와 윤리

I 직업과 청렴의 윤리 130
J 사회 윤리와 정의 154
K 분배적 정의 [1등급 대비] 165
L 교정적 정의 [고난도 대비] 198
M 국가의 권위와 의무 [고난도 대비] 225
N 민주 시민과 시민 불복종 [고난도 대비] 240

Ⅳ 과학과 윤리

O 과학 기술과 윤리 270
P 정보 사회와 윤리 292
Q 인간과 자연의 관계 [1등급 대비] 313
R 환경 문제와 윤리 349

Ⅴ 문화와 윤리

S 예술과 대중문화 윤리 353
T 의식주 윤리와 윤리적 소비 373
U 다문화 사회의 윤리 393
V 종교와 윤리 405

Ⅵ 평화와 공존의 윤리

W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415
X 민족 통합의 윤리 427
Y 지구촌 평화의 윤리 436
Z 국제 정의와 해외 원조 [고난도 대비] 454

Special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 10회

01회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478
02회 2024 실시 5월 학력평가 481
03회 2024 대비 6월 모의평가 484
04회 2025 대비 6월 모의평가 487
05회 2024 실시 7월 학력평가 490
06회 2024 대비 9월 모의평가 493
07회 2025 대비 9월 모의평가 496
08회 2024 실시 10월 학력평가 499
09회 2024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02
10회 2025 대비 대학수학능력시험 505



F 죽음과 윤리

F 01 정답 ⑤ ∗ 장자와 석가모니의 죽음관 ····· 고난도 [① 5% ② 54% ③ 6% ④ 3% ⑤ 32%] 2025 대비 수능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장자): 태초에 무언가가 섞이고 변하여 기(氣)를 얻었고, 기가 변하여 형체를 갖게 되었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 생명이 변하여 죽음에 이른다.
단서 생사는 기의 취산 과정

을(석가모니): 늙음[老]과 병듦[病]과 죽음[死]을 떨쳐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세 가지의 법(法)을 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세가지는 바로 탐욕[貪], 성냄[順], 어리석음[癡]이다.
단서 삼독의 제거를 통한 해탈

① 갑(장자): 죽음은 기가 흩어진 것이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받아들여야 함
② 갑(장자):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인륜의 도(道)를 완성할 수 있다. → 인간의 윤리
③ 을(석가모니): 죽음의 참모습을 자각하면 업(業)을 짓지 않고 윤회하게 된다. → 윤회 ×
④ 을(석가모니):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삶과 죽음의 의존관계를 부정해야 한다. → 긍정
⑤ 갑과 을: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生死)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갑(장자): 생사는 자연적 과정,
을(석가모니): 생사의 실상을 깨달음

오답 틀렸나?
장자의 도(道)는 인륜적이기보다는 자연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②를 골랐을 것이다. 장자와 노자 등 도가 사상가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제+자료 분석 |
- **갑** 장자: 삶과 죽음의 변화는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이자 자연의 순리임
- **을** 석가모니: 연기법을 깨달아 삼독을 제거한다면 해탈하여 열반에 이를 수 있음

| 선택지 분석 |
① 갑(장자)은 모여 있던 기가 흩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에 부합하므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② 갑(장자)은 인간의 관점에서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일은 도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도는 인륜의 실천이 아니라 자연에 따를 때 완성된다. 함정
③ 을(석가모니)은 삶과 죽음의 실상을 자각하면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어 해탈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석가모니)은 삶과 죽음이 상호 의존해 있다는 연기법을 자각하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⑤ 갑(장자)은 도의 경지에 이르면 생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어 생사에 대한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을(석가모니)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득도, 得道] 연기법을 자각하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박정빈 | 2025 수능 응시 · 대구 남산고 졸
갑은 장자이고 을은 석가모니야. ②번 선지는 인륜의 도를 도가가 말하는 도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륜의 도이기에 도가의 입장이 아니야. ⑤번 선지는 을은 열반을 이야기하므로 익숙한 표현이었고, 갑도 생사에 초연해야 한다고 봐서 답으로 고를 수 있어.

F 02 정답 ③ ∗ 죽음에 대한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비교 ····· [정답률 74%] 2024 실시 5월 학평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장자): 성인(聖人)은 모두가 그대로 존재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노닌다[逍遙遊]. 그러므로 성인은 일찍 죽어도 좋고, 늙어 죽어도 좋고, 태어나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단서 소요유 → 도의 관점에서 생사를 바라보기

을(에피쿠로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해체된 것은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깨닫게 될 때, 불멸에 대한 갈망이 제거되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
죽음은 감각의 상실에 불과함 단서 / 헛된 욕망

[보기]
ㄱ. 갑(장자): 삶은 좋아함으로 죽음은 싫어함으로 분별된다. → 생사 분별 ×
ㄴ. 을(에피쿠로스): 죽음 이후에 소멸하는 것은 영혼이 아닌 육체이다. → 영혼과 육체
ㄷ. 을(에피쿠로스): 죽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 죽음은 고통이 아님
ㄹ. 갑과 을: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하면 불멸에 대한 욕구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갑(장자): 죽음을 자연의 과정으로 수용,
을(에피쿠로스): 영생에 대한 욕망에서 해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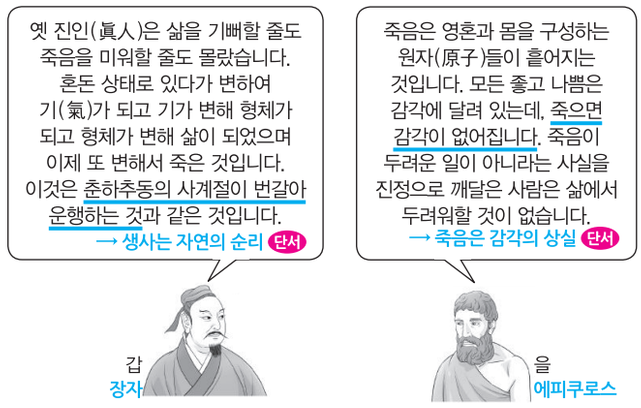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 문제+자료 분석 |
- **갑** 장자: 도의 관점에서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생사를 분별하거나 호오하지 않게 됨
- **을** 에피쿠로스: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생에 대한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쾌락을 누릴 수 있음

| 보기 분석 |
ㄱ. 갑(장자)은 생사는 도에 따른 기의 모임과 흩어짐의 과정이므로 어느 한쪽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도에 어긋난다고 본다. 생사를 분별하거나 호오하지 말고 자연적인 순리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ㄴ. 을(에피쿠로스)은 영혼이 감각의 주요한 원인이지만 육체에 의해 영혼이 어느 정도 보호받기 때문에 인간이 감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죽음의 과정에서 인간을 구성하는 원자가 해체되면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소멸하고, 결과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꿀팁
ㄷ. 을(에피쿠로스)은 아직 살아 있을 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는 감각이 사라져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장자)은 도의 관점에서 죽음을 올바르게 인식한다면 생사를 자연적인 순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본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자연의 순리에 부합하는 일로 여겨, 불멸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보다는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을(에피쿠로스)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영생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본다.

F 03 정답 ① ∗ 죽음에 대한 장자와 에피쿠로스의 입장 ····· [정답률 86%] 2025 대비 6월 모평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갑(장자):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나친 슬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사를 호오 ×)
② 갑(장자): 삶의 단절인 죽음은 생자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다. (기의 순환 과정)
③ 을(에피쿠로스): 죽음은 육체의 고통을 낳지만 죽음에 대한 이해는 평온을 낳는다. (고통 야기 ×)
④ 을(에피쿠로스):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영혼 소멸)
⑤ 갑과 을: 죽음 이후에는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갑(장자): 기의 순환, 을(에피쿠로스): 원자의 운동

| 문제+자료 분석 |

- **갑** 장자: 생사는 사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적으로 순환하므로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음
- **을** 에피쿠로스: 죽기 전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때는 감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

| 선택지 분석 |

① 갑(장자)은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처럼 때가 되어 삶을 얻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② 갑(장자)은 기가 모이면 삶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고 본다. 기가 모이고 흩어지는 일은 자연적인 순환 과정이므로, 삶과 죽음도 순환을 반복하면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③ 을(에피쿠로스)은 죽음은 감각을 상실하는 일이므로 고통을 야기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고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④ 을(에피쿠로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육체와 영혼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지면서 영혼이 소멸한다고 본다. 따라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갑(장자)은 인간이 죽을 때 모여 있던 기가 흩어지는 것일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다. 기는 다시금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을(에피쿠로스)은 죽을 때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들이 해체되어 흩어질 뿐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F 04 정답 ② ∗ 에피쿠로스와 장자의 죽음관 ····· 고난도 [① 20% ② 46% ③ 6% ④ 24% ⑤ 4%] 2024 실시 7월 학평 13

서양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에피쿠로스): 현자(賢者)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가장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단서 →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함으로써 쾌락 향유
을(장자): 진인(眞人)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다. 단서 → 죽음을 자연적인 과정으로 수용

① 갑(에피쿠로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영혼과 육체 소멸)
② 갑(에피쿠로스):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현자는 삶에서 도피 ×)
③ 을(장자):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예(禮)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한다. (도(道)에 위배됨)
④ 을(장자):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기(氣)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흩어지는 것)
⑤ 갑과 을: 죽음 자체는 이상적인 인간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다.
갑(에피쿠로스): 감각의 상실, 을(장자): 자연의 섭리

| 문제+자료 분석 |

- **갑** 에피쿠로스: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현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음
- **을** 장자: 삶과 죽음의 과정은 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생사를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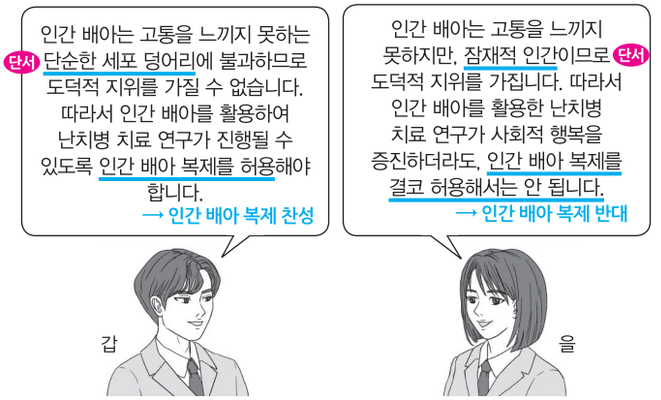
| 선택지 분석 |

① 갑(에피쿠로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영혼과 육체를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 영혼과 육체 모두 소멸한다고 본다.
② 갑(에피쿠로스)은 죽음이 인생의 악을 중지시켜 준다는 이유로 죽음을 열망하는 사람을 비판하면서 현자는 삶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본다.
③ 을(장자)은 삶과 죽음은 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죽음을 슬퍼하는 행위가 도에 어긋난다고 본다.
④ 을(장자)은 기가 모이면 생겨나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본다. 개체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기는 소멸하지 않고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한다.
⑤ 갑(에피쿠로스)은 현자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죽음 자체는 감각의 상실에 불과하므로 불행은 아니라고 본다. 을(장자)은 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죽음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자연적인 섭리이므로 불행이 아니라고 본다.

오답 틀렸나?
④를 답으로 고른 학생들은 에피쿠로스와 장자 모두 인간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흩어진다고 보았으나 그 요소들은 소멸하지 않고 운동하므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점을 알아야 한다. '흩어짐'과 '소멸'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함정

G 03 정답 ②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률 96%] 2024 실시 5월 학평 8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 인간 배아는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세포 덩어리에 불과

② 갑: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을

③ 을: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 인간이므로

④ 을: 사회적 유용성을 근거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 지니므로

⑤ 갑과 을: 인간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갑, 을의 공통점

| 문제+자료 분석 |

- **갑**: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하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므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해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함
- **을**: 인간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한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됨

| 선택지 분석 |

① 갑은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못한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므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갑과 달리 인간 배아를 잠재적 인간으로 간주하고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 존재로 본다.
③ 을은 인간 배아는 비록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미래에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간이라고 본다.
④ 을은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아무리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더라도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⑤ 갑과 을 모두 인간 배아 복제는 난치병 치료 연구를 진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갑은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면, 을은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G 04 정답 ⑤ * 인간 배아 복제 기술의 윤리적 쟁점 [정답률 84%] 2024 대비 수능 4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가)	인간 배아 복제는 줄기세포를 추출하기 위해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대전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 결론: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①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
인간 배아 복제 반대 입장의 근거

② 인간은 인간 배아와 유전적 특징이 다르지 않다.
인간 배아 복제 반대 입장의 근거

③ 인간 종의 구성원들 중에는 인간 배아도 포함된다.
인간 배아 복제 반대 입장의 근거

④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끊임없이 연속적이다.
인간 배아 복제 반대 입장의 근거

⑤ 인간 배아는 도덕적 지위가 없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이다.
인간 배아 복제 지지 입장의 근거

| 문제+자료 분석 |

- **(가)**: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나)**

	대전제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소전제 (㉠)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결론	인간 배아를 파괴하는 인간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선택지 분석 |

① (가)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배아 복제는 인간 배아를 파괴하여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② 인간과 인간 배아가 유전적 특징이 동일하다는 근거는 인간 배아 파괴를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③ 인간 배아를 인간 종의 구성원이라고 보는 근거는 인간 배아 파괴가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④ 인간 배아가 인간이 되는 과정은 연속적이라서 양자를 분리하는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인간 배아 파괴를 인간 생명의 파괴 및 침해로 보는 (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인간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근거는 인간 배아 파괴가 인간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므로,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적절하다.

Ⅰ 07 정답 ① ✱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와 칼뱅의 입장 [정답률 75%] 2024 실시 10월 학평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마르크스): 자본주의에서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노동자의 노동은 강요된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상실이다. 강제로 수행되는 노동이 멈출 때 자유의 영역은 비로소 시작된다.
(단서: 자본주의적 노동은 자유 실현 방해)

을(칼뱅): 각 개인에게는 신께서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지정해 주신 초소와 같다. 이 모든 것이 신께서 지워 주신 의무임을 우리가 알고 따를 때 소명(召命)은 신 앞에서 빛날 것이다.
(신의 뜻에 따라 직업 생활 충실 / 단서)

① 갑(마르크스):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공산사회에서 노동의 본질은 실현된다.
② 갑(마르크스): 자본주의의 기술적 분업을 통해 노동 소외를 없애야 한다. (분업 철폐)
③ 을(칼뱅): 노동하는 것과 독실한 신앙 생활을 병행해서는 안 된다. (병행해야 함)
④ 을(칼뱅):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이 부여한 소명에 위배된다. (부합함)
⑤ 갑과 을: 노동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이다.
갑(마르크스): 자아실현, 을(칼뱅): 신앙생활

| 문제+자료 분석 |

- **갑** 마르크스: 자본주의하에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분업으로 인해 노동소외를 겪고 있음
- **을** 칼뱅: 직업을 신의 소명으로 간주하고 근면하게 노동하고 부를 축적함으로써 신의 뜻을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함

| 선택지 분석 |

① 갑(마르크스)은 계급이 완전히 소멸된 공산사회에서는 강제와 착취가 사라지므로 노동의 본질인 자아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② 갑(마르크스)은 자본주의의 분업으로 인해 노동자가 생산 과정, 생산물, 타인 등으로부터 소외된다고 본다.
③ 을(칼뱅)은 직업 생활을 신의 소명으로 여기고 근면 성실하게 노동함으로써 독실한 신앙생활과 직업 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을(칼뱅)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근면하게 노동하여 부를 축적하는 일은 신의 뜻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⑤ 갑(마르크스)은 노동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만약 노동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면 자본주의 하의 노동도 바람직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을(칼뱅)은 독실한 신앙생활을 위해 신의 뜻에 따라 근면 성실하게 노동해야 한다고 본다.

Ⅰ 08 정답 ⑤ ✱ 순자와 플라톤의 직업관 [정답률 89%] 2024 대비 9월 모평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순자):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직분[分]과 예의[義]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되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나라가 혼란해져 편히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다.
(인간은 본성상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 → 예로써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

을(플라톤):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서로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 지혜, 용기, 절제 등의 덕을 발휘 → 사회 구성원 각자가 본분에 맞는 덕을 발휘해야 정의가 실현됨)

[보기]

ㄱ. 갑: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 (도(道))
ㄴ. 갑: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예)
ㄷ. 을: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제 할 일을 함)
ㄹ. 갑과 을: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갈등 해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문제+자료 분석 |

- **갑**(순자): 인간은 본성상 자기 욕구와 이익을 우선하므로 예(禮)를 통해 본성을 교화하고 예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구분해야 함. 이처럼 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천하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
- **을**(플라톤): 인간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상이한 계층에 속하게 되므로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됨

| 보기 분석 |

합정

ㄱ. 갑(순자)은 군주가 모든 일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 도(道)에 통달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일을 행한다고 본다. 농부나 대장장이 등은 각자 자신이 맡은 일에는 정통하지만, 도에는 통달하지 못했기에 다스림을 받는다.

ㄴ. 갑(순자)은 예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본다. 비록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배우지 않았다면 서민의 역할을 해야 하고, 비록 서민의 자손이라도 예의를 익혀 덕성을 갖추었다면 사대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ㄷ. 을(플라톤)은 정의를 다른 계층의 일을 넘보지 않고 제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등 세 계층이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

ㄹ. 갑(순자)은 예를 바탕으로 덕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지 않는다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므로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을(플라톤)은 국가의 세 계층이 다른 계층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적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다. 순자와 플라톤 모두 역할의 구분이 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고 본다. 꿀팁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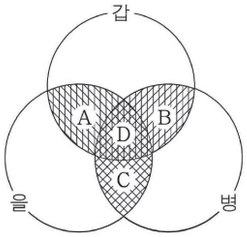
(가)

갑: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원초적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하며 정의의 원칙 제시
표현하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 롤스

을: 정치 공동체에서 부(富)를 전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떤 사회적 가치도 다른 가치로 전환되어 다른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왈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제시

병: 최소 국가는 정당화될 수 있는 국가로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이다.
최소 국가를 주장하며,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제시
이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 노직

(나)



A: 롤스○, 왈처○, 노직×
B: 롤스○, 왈처×, 노직○

<범 례>
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C: 롤스×, 왈처○, 노직○
D: 롤스○, 왈처○, 노직○

[보기]

ㄱ. A: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분배 정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롤스○, 왈처○, 노직×

ㄴ. B: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롤스○, 왈처○, 노직○

ㄷ. C: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현재의 응분의 자격을 발생시킬 수 없다. 노직×

ㄹ. D: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가 분배 정의 실현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롤스○, 왈처○, 노직○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정의로운 분배에 대한 입장

사상가	정의로운 분배	특징
노직	소유권으로서의 정의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절대적 권리를 지님 •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가 정당하다고 주장함
롤스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사회 제도가 공정한 조건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함
왈처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됨 •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른 다양한 정의 기준을 인정함

| 문제+자료 분석 |

- 갑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 하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봄
- 을 왈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각기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가 분배될 때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고 봄
- 병 노직: 개인이 취득한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지니며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때 정의롭다고 봄

| 보기 분석 |

ㄱ. 롤스와 왈처만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되기 때문에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왈처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 시행이 분배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가령 복지 분야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국가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왈처는 복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경계했다. 노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고 본다. 합정

ㄴ.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는 차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정의한 분배를 교정하기 위해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였으며, 왈처의 경우에도 한 영역에서의 지위가 다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것을 주장한다. 노직 또한 정당한 소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은 정당하다고 본다.

ㄷ. 노직의 입장이 아니다. 노직은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는 사물들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와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고 본다.

ㄹ. 세 사상가의 공통 입장이다. 롤스는 분배의 결과 보다는 분배를 위한 절차적 정의에 관심을 둔다. 자유 지상주의자인 노직은 재산과 소득의 균등 분배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왈처 또한 국가에 의한 단순 평등 체계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부정의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 풀이 Tip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 유형은 수능 생활과 윤리에서 매년 출제되고 있다. 물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보기>를 정확하게 진위 판별하여 정답을 고르는 것을 연습 해야하지만, 간혹 헷갈리는 진술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장 확실하고 익숙한 선택지를 고르고 그것을 제외(혹은 포함)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ㄷ'이 노직의 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익숙한 내용이다. 노직은 소유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ㄷ은 틀린 선택지이므로, 답은 ①번(ㄱ, ㄴ)과 ②번(ㄱ, ㄹ) 선택지로 좁혀진다. ㄱ은 공통된 진술이므로, ㄴ과 ㄹ을 먼저 확인해보자.

특히, ㄹ은 세 사상가 모두 '균등 분배'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보기> 중 가장 확실한 내용과 선택지 조합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L 35 정답 ④ ∗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교정적 정의 ····· ✪ 고난도 [① 28% ② 6% ③ 14% ② 40% ⑤ 12%] 2025 대비 수능 16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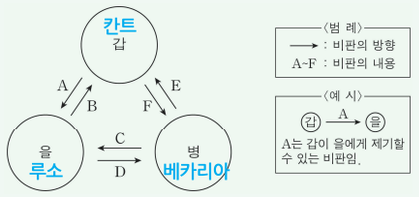
(가)

갑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와 어느 정도의 칸트 형벌인가?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단서 응보로서의 형벌

을 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루소 단서 일반 의지에 복종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병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베카리아 단서 사형보다 효과적인 종신 노역형 엄격성을 지닌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나)



① A: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을(루소): 간과 ×

② B: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갑(칸트): 간과 ×

③ C와 E: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병(베카리아): 양도 ×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자기보존)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⑤ F: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갑(칸트): 범죄의 경중도 고려

단서+발상

단서
- 갑: 보복법
- 을: 일반 의지
- 병: 종신 노역형

발상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다.

적용 루소는 자기보존을 위한 사회 계약에 사형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보복법에 따라 형벌의 질과 양을 정해야 한다는 칸트다.
- 을은 일반 의지에 불복종하는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루소다.
- 병은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효과적이라는 베카리아다.

step 2 사상가 간 비판의 내용이 A~F에 알맞게 짝지어져 있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① A: 사형은 살인범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응보적 형벌임을 간과한다.

- 갑(칸트)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가 범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형은 살인범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부과되는 응분의 형벌이다.
- 을(루소)은 사회 계약을 위반한 살인자를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사형은 살인범에게 부과되는 응분의 형벌이다.

∗ 을(루소)이 간과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② B: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을(루소)은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사회 계약을 위반하고 일반 의지에 불복종하는 행위를 처벌하라는 법의 요구라는 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 갑(칸트)은 살인범에 대한 사형은 정의가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이므로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에 해당한다고 본다.

∗ 갑(칸트)이 간과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③ C와 E: 사형은 개인이 국가에 양도한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하는 형벌임을 간과한다.

- 병(베카리아)은 사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국가에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는다고 본다. 국가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개인들이 양도하지 않은 생명권을 국가가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 병(베카리아)은 개인이 국가에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④ D: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모든 시민이 사형제에 동의해야 함을 간과한다.

- 을(루소)은 사회 계약의 목적인 자기보존을 위해 자신의 생명권을 양도하여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목숨을 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기꺼이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꿀팁
- 병(베카리아)은 사회 계약의 목적인 자기보존을 위해 국가에 생명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살인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가 사형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 을(루소)은 시민들이 사회 계약의 목적을 위해 사형제에 동의한다고 보지만, 병(베카리아)은 그렇지 않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다.

⑤ F: 형벌의 경중은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여 결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갑(칸트)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결정할 때 범죄의 동기뿐 아니라 범죄의 경중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 갑(칸트)은 형벌의 경중이 오직 범죄의 동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 정답은 ④이다.

오 틀렸나?

①을 고른 학생은 응보주의를 칸트만의 고유한 입장이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소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사회 계약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응분의 형벌이라고 본다. 사상가들의 입장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사형에 대한 칸트, 루소, 베카리아의 입장 비교 ····· ✪ 고난도 핵심 개념

구분	칸트	루소	베카리아
사형은 일종의 응보적 형벌이다.	○	○	×
사형은 정의를 실현하는 형벌이다.	○	○	×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는 형벌이다.	○	○	×



박정빈 | 2025 수능 응시 · 대구 남산고 졸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야. 루소는 사회 계약 부분에서도 나오는 학자지? 베카리아도 사회 계약론자야. 루소는 시민들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형제에 동의한다고 보지만, 베카리아는 가장 소중한 생명권은 양도될 수 없다고 보고 사형제에 반대해. 따라서 ④번이 적절해.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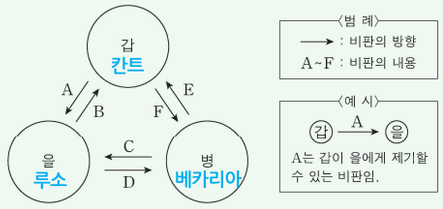
(가)

단서
갑 칸트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 사형은 일종의 정언 명령

을 루소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살인자는 국가의 적 단서

병 베카리아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사형이 유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음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인도주의의 대의를 선취하고자 한다. → 사형은 부당한 형벌 단서

(나)



① A와 F: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을(루소): 살인자를 추방 또는 사형

② B: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을(루소): 국가 존립을 위해 사형 집행

③ C: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병(베카리아): 사형은 사회 계약에 근거 ×

④ D: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을(루소): 사형은 살인자의 동의 전제

⑤ E: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병(베카리아): 사형 대신 종신 노역형

단서+발상

단서
- **갑**: 정언 명령
- **을**: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
- **병**: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발상 갑은 칸트, 을은 루소, 병은 베카리아다.

KEY 루소는 살인자의 동의에 근거한 사회 계약에 따라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형벌의 법칙을 정언명령으로 간주하고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칸트이다.
- 을은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루소이다.
- 병은 사형을 유용성 측면에서 종신 노역형보다 뒤떨어질뿐더러 사회 계약을 위배하는 부당한 형벌로 보는 베카리아이다.

step 2 사상가 간 비판의 내용이 A~F에 알맞게 짝지어져 있는지 판단한다.

| 선택지 분석 |

① A와 F: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다.

- 갑(칸트)은 살인자를 마땅히 사형에 처함으로써 시민 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 을(루소)은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본다.
- 병(베카리아)은 살인자에게 종신 노역형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억제 효과를 증진해야 한다고 본다.

✱ 을(루소)이 살인자는 시민 사회에서 제거될 수밖에 없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② B: 사형은 국가 존립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해 집행됨을 간과한다.

- 갑(칸트)은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은 사법권의 이념이자 정의가 선험적으로 정초된 법칙에 따라 의욕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은 정의의 요구이자 정언 명령이다.
- 을(루소)은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를 보존하는 데 있다고 본다. 살인자에게 부과되는 사형은 살인자로부터 국가의 구성원이자 사회 계약의 당사자를 보호한다. 또한,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국가의 시민이 아니라 적이 된다. 국가를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땅히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해야 한다.

✱ 을(루소)이 사형은 국가 존립을 위해 집행된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③ C: 사회 계약에 근거해 모든 종류의 형벌이 집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을(루소)은 형벌의 정당성이 사회 계약에 근거한다고 본다. 사회 계약을 통해 수립된 일반 의지의 행사가 곧 법이고, 이러한 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일은 사회 계약에 의해 정당화된다.
- 병(베카리아)은 형벌이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모든 형벌이 사회 계약에 의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집행하는 일은 사회 계약을 위배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회 계약 과정에서 국가에 양도된 자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 병(베카리아)은 모든 종류의 형벌이 사회 계약에 근거해 집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④ D: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 을(루소)은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목숨을 걸 권리가 있다고 본다. 다른 살인자에게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와 집행은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한다.
- 병(베카리아)은 비록 살인자라도 사회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양도하지 않았다고 본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자 맺는 사회 계약 과정에서 자신을 죽일 권리를 국가에 넘기는 일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 을(루소)은 사형이 살인자의 동의를 전제한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⑤ E: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갑(칸트)은 범죄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동해 보복의 원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병(베카리아)은 형벌의 목적을 보복이 아닌 범죄 예방과 억제에 둔다. 따라서 동해 보복 원리에는 어긋나지만, 사형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을 산출하는 종신 노역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다.

✱ 병(베카리아)은 동해 보복 원리에 어긋나는 형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지만, 갑(칸트)은 그렇지 않다고 보므로 적절한 비판이다.

✪ 정답은 ⑤이다.

오답 틀렸나?
④를 답으로 고른 학생들은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회 계약에 근거하여 형벌의 정당성을 논하지만, 사형에 관련해서는 상이한 태도를 취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사형이 사회 계약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므로 살인자가 사형에 동의했다고 보지만, 베카리아는 사형이 사회 계약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므로 살인자는 사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N 34 정답 ⑤ ✱ 시민 불복종에 대한 싱어와 롤스의 입장 ····· ✪ 고난도 [정답률 43%] 2024 대비 6월 모평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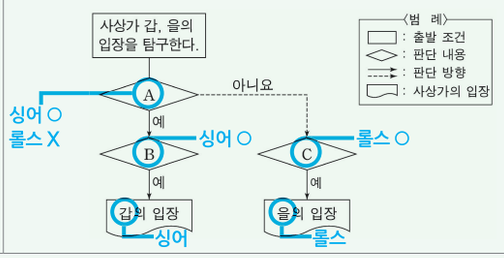
갑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한다. → 공리의 원칙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

을 시민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 정의의 원칙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

단서

싱어 / 롤스

(나)



[보기]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갑(싱어), 을(롤스) 모두 부정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좌절시키는 시도 X

ㄷ. C: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

ㄹ. C: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정의의 원칙은 공공의 정의관의 기본 원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좋음에 의해 정당화
을: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함

발상 갑은 싱어, 을은 롤스이다.

KEY 롤스는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도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결과적인 좋음'에서 찾는 싱어이다.
- 싱어는 시민 불복종을 통해 중단할 수 있는 악의 크기와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야기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시민 불복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 을은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을 '정의의 원칙'에서 찾는 롤스이다.
-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에 호소하는 정치적인 청원 행위라고 본다.

step 2 사상가들의 입장이 A~C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A에는 갑(싱어)이 긍정, 을(롤스)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B에는 갑(싱어)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C에는 을(롤스)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

- 갑(싱어)은 시민 불복종이 다수를 강제하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본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불복종을 통해 어떤 민주주의적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또는 상당수의 사람이 그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정치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 이처럼 시민 불복종을 비폭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항의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 을(롤스)은 시민 불복종을 다수자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로 본다. 특히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비폭력적일 뿐 아니라 불복종에 따른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는 의지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사회의 다수자에게 특정한 법이 부당함을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 ㄱ은 싱어와 롤스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ㄴ.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

- 갑(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에 근거한 민주주의적인 결정을 좌절시키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는 시도이다.
- 예를 들어 사회의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비참하게 사육되고 있는 사실을 다수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 관해 숙고할 수 있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 이처럼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회복하는 데 유용하다.

✱ ㄴ은 싱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ㄷ. C: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

- 을(롤스)은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란 정의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고 대체로 질서 정연하지만 때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하는 사회이다.
- 롤스에게 입법 과정이란 언제나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한 경우이다. 비록 우리가 정의로운 입법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갖는다 할지라도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임을 보장할 만한 현실적인 절차가 없다는 것이다.
- 그로 인해 특정한 법이 정의의 제1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면, 그에 대해 시민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 ㄷ은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ㄹ. C: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

- 을(롤스)은 시민 불복종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또는 특정한 종교적 원칙이나 개인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특정한 이익 집단도 자기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유된 정의관에 근거한다면 시민 불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정

✱ ㄹ은 롤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정답은 ⑤ ㄴ, ㄷ, ㄹ이다.

오내 틀렸나?

롤스가 시민 불복종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 점을 알고 있더라도,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이라는 점을 포착하지 못했다면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Q 34 정답 ④ ✻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비교 ····· ✪ 1등급 대비 [① 14% ② 14% ③ 16% ④ 37% ⑤ 19%] 2024 실시 5월 학평 10

(가)의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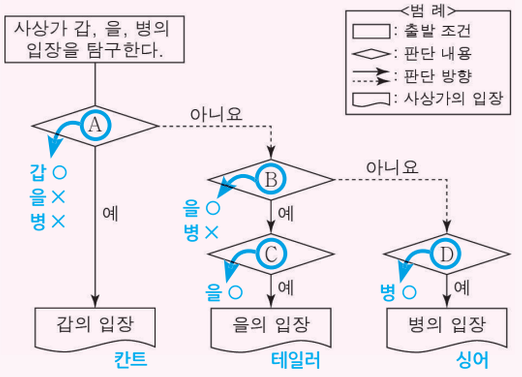
(가)

갑 늙은 말이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동물에 관련한 감사의 정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 (단서) → 동물에 관한 간접적 의무

을 기계는 목표 지향적 활동을 보이지만 독립적 존재로서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지니며, 우주의 다른 어떤 것과도 독립적으로 그들 자체가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이다.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고려 (단서)

병 동물도 고통의 상황에서 혈압이 오르고 동공이 팽창하는 등 인간의 신경계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킨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단서) 동물이 느끼는 고통을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 고려

(나)



[보기]

ㄱ. A: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갑 ○, 을 ○, 병 ○)

ㄴ B: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병(싱어): 도덕적 지위 여부의 기준은 쾌고 감수 능력)

ㄷ. C: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을(테일러): 고유의 선도 고려)

ㄹ D: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병(싱어): 서로 다른 대우 가능)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간접적으로는 인간의 의무
- **을**: 고유의 선, 목표 지향적 활동의 중심
- **병**: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발상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이다.

적용 테일러는 생명체가 기계와 달리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 칸트는 동물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현을 인간의 간접적 의무로 본다.
- 테일러는 생명체를 고유의 선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step 2 (나)의 각 조건에 사상가의 입장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는지 판단한다.

- A의 질문에 갑은 긍정, 을과 병은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B의 질문에 을은 긍정, 병은 부정하는지 판단한다.
- C의 질문에 을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D의 질문에 병은 긍정하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비이성적 개체를 해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는가?

- 갑(칸트)은 인간 외의 비이성적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인간을 위해 해칠 수 있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생명체를 섭취해야만 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생명체를 해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식물 등의 개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으므로 인간을 위해 해칠 수 있다고 본다.

✻ ㄱ에 대해 갑(칸트), 을(테일러), 병(싱어) 모두 긍정하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생명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 을(테일러)은 식물이 비록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고유의 선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본다.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식물은 이익 관심을 지니지 않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ㄴ에 대해 을(테일러)은 긍정, 병(싱어)은 부정하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목표 지향적 활동의 여부는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인가?

- 을(테일러)은 어떤 존재가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기계는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지만, 고유의 선을 갖지 않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존재를 위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햇빛은 장미의 성장이나 번식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좋지만 우박은 나쁘다. 따라서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 반면, 기계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말할 수는 없다. 기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잘 발라야 하는 까닭은 윤활유가 기계에 좋기 때문이 아니라, 기계의 원활한 작동이 인간에게 좋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계는 고유의 선을 갖지 않는다. 비록 기계는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지만, 고유의 선을 지니지 않으므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함정)

✻ ㄷ에 대해 을(테일러)은 부정하므로 C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D: 유정적 존재의 특성에 따라 도덕적 배려의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가?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유정적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각 존재의 특성에 따라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 예를 들어 인간의 쾌락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강아지의 쾌락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다르다. 따라서 두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더라도, 그것을 증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상이할 수 있다.

✻ ㄹ에 대해 병(싱어)은 긍정하므로 D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④ ㄴ, ㄹ이다.**

오! 틀렸나?

제시문을 꼼꼼히 읽지 않았다면 ㄷ의 내용을 생소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제시문에서는 기계와 생명체 모두 목표 지향적 활동을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기계와 달리 생명체만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한다. 따라서 도덕적 고려의 여부를 결정할 때 목표 지향적 활동 여부 외에 고유의 선 소유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Q 36 정답 ⑤ ∗ 칸트, 테일러, 싱어의 자연관 ····· ✪ 1등급 대비 [① 16% ② 19% ③ 10% ④ 15% ⑤ 40%] 2024 실시 10월 학평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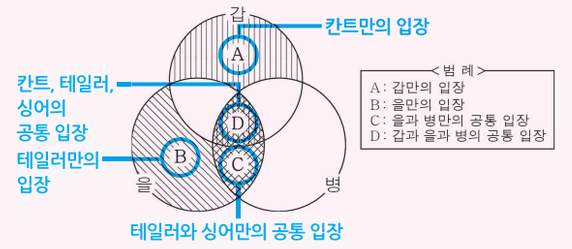
(가)

㉠ 갑 동물이 이성을 지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칸트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와 진정으로 대립한다. 단서 간접적 의무 준수

㉡ 을 개별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내재적 테일러 가치를 지닌다. 우리는 이들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단서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존중

㉢ 병 종 차별주의를 버리고 육식을 멈추면 식량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식량을 싱어 제대로 분배하면 기아를 없앨 수 있다. 동물 해방은 인간 해방이기도 하다. 단서 고통 느끼는 존재를 도덕적 고려

(나)



[보기]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갑(칸트): 간주 가능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C, 인간 이외의 존재

㉢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갑(칸트): 동물에 대한 의무 ×

㉣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인간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단서+발상

단서
- 갑: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 을: 목적론적 삶의 중심
- 병: 종 차별주의, 동물 해방

발상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싱어다.

적용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면서 동시에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이 누구인지 파악한다.
- 갑은 동물 학대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를 위배한다고 주장한 칸트다.
- 을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테일러다.
- 병은 육식을 줄여서 기아를 없애는 등 동물과 인간의 고통을 줄여야 한다는 싱어다.

step 2 ㄱ~ㄹ이 (나)의 A~D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동물은 수단으로 간주되지만 인간은 수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
- 갑(칸트)은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동물과 달리 인간을 수단으로 대할 때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즉,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은 비도덕적이지만, 인간을 수단이자 목적으로 대우하는 일은 허용된다.
- 을(테일러)은 자연 존중의 태도에 어긋나지 않는 한,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동물과 인간 모두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 ㄱ의 내용은 갑(칸트), 을(테일러), 병(싱어) 모두 부정한다.

ㄴ. B: 생명이 있는 비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 갑(칸트)은 이성을 지니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이성을 지니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자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도덕적 지위를 소유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다고 본다.

∗ ㄴ의 내용에 갑(칸트)은 부정, 을(테일러)과 병(싱어)은 긍정한다.

㉢ C: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조건부로 이행될 수 있다.
- 갑(칸트)은 인간은 오직 인간 자신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니므로,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동물에 관련한 의무를 지닌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내재적 가치를 소유한 동물에 대한 의무는 무조건적이거나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인간은 야생동물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해당 동물의 고유한 선을 증진하는 일부 간섭은 허용될 수 있다.
- 병(싱어)은 특정 상황에서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라는 요구가 결과적으로 이익보다 더 큰 해악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러한 요구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ㄷ의 내용에 갑(칸트)은 부정, 을(테일러)과 병(싱어)은 긍정한다.

㉣ D: 인간 이외의 개체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갑(칸트)은 도덕적 지위를 소유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동물과 식물 간에 차별적인 대우가 성립한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특정 종의 개체 수가 과잉되어 전체 생태계를 망칠 때 일부 개체를 제거하는 일이 정당한 것처럼 다른 생명체를 위해 특정 생명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병(싱어)은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한 인간 및 동물과 쾌고 감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식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이 허용된다고 본다.

∗ ㄹ의 내용에 갑(칸트), 을(테일러), 병(싱어) 모두 긍정한다.

✪ 정답은 ⑤ ㄷ, ㄹ이다.

오답 틀렸나?

칸트가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오해한 학생들은 ②를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때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테일러의 우선성 원리 ····· ✪ 1등급 핵심 개념

자기방어의 원리	도덕적 행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기체에 저항하는 것
비례의 원리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보다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것
최소 해악의 원리	인간의 부차적인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동식물이 입을 해악을 최소화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
분배적 정의의 원리	인간의 기본적 이해관계와 동식물의 기본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동식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것
보상적 정의의 원리	최소 해악의 원리와 분배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될 때 인간 외의 생명체에 대해 보상하는 것

Q 37 정답 ⑤ ····· [정답률 30%] ✪ 1등급 대비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2022 대비 수능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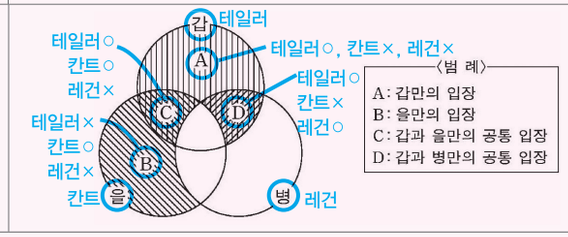
(가)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외적 활동뿐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생물의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지닌다. → 테일러 (단서)

을: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은 삼가야 하며,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동물을 부려야 한다. → 칸트 (단서)

병: 삶의 주체는 결코 마치 다른 것들을 위한 자원인 것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다른 존재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 레건 (단서)

(나)



[보기]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생명을 지닌 것은 필요조건으로, 테일러만의 입장이 아님)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ㄷ.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
을: 인간의 도덕적 소질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동물에 대한 잔인한 폭력을 삼가야
병: 삶의 주체

발상 갑은 테일러(생명 중심주의), 을은 칸트(인간 중심주의), 병은 레건(동물 중심주의)이다.

KEY '생명체여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테일러, 칸트, 레건의 공통 입장이다.

출제 개념: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 칸트의 인간 중심주의, 레건의 동물 중심주의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제시문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을 파악한다.

1. 갑은 테일러이다.
- 갑은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존재로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테일러이다.

2. 을은 칸트이다.
- 을은 인간의 도덕적 지위만을 인정하고 자연의 도덕적 지위를 부정하는 칸트이다.

3. 병은 레건이다.
- 병은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의무론을 동물까지 확대한 레건임을 알 수 있다.

step 2 벤다이어그램의 A~D에 대한 갑, 을, 병 사상가의 입장을 적용한다.
- 제시문 분석을 통해, 갑은 테일러, 을은 칸트, 병은 레건임을 알 수 있다.
- 벤다이어그램의 A, B, C, D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정리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 (✕)
- **테일러에 대한 판단**: 테일러는 생명 중심주의 사상가이므로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입장이며 무생물에 대한 도덕적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생명을 가진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 **레건에 대한 판단**: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ㄴ. B: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
- **테일러에 대한 판단**: 테일러는 동물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인간의 가치 평가 여부와는 별개로 동물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 입장에서 볼 때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동물이 인간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 **레건에 대한 판단**: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삶의 주체인 동물은 인간의 가치 평가 여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ㄷ. C: 쾌고 감수 능력은 어떤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이 아니다. (○)
- **테일러에 대한 판단**: 테일러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 **레건에 대한 판단**: 레건은 어떤 개체가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니려면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ㄹ. D: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가 있다. (○)
- **테일러에 대한 판단**: 테일러는 각기 고유한 방식으로 생존, 성장, 발전, 번식을 위해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칸트에 대한 판단**: 칸트는 인간에 대한 의무만이 직접적인 의무이며, 자연에 관한 의무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위한 간접적 의무임을 강조한다.
- **레건에 대한 판단**: 레건은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를 지니며 인간은 삶의 주체를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 정답은 ⑤ ㄴ, ㄷ, ㄹ이다.

* 칸트,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의 입장 비교 ····· ✪ 1등급 핵심 개념

	칸트, 레건, 테일러	레오폴드
차이점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음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무생물도 도덕적으로 존중해야 함
공통점	• 인간만이 자율적으로 행위하는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음	



박정빈 고려대 한국사학과 2022년 입학 · 이리고 졸

ㄱ선지의 '생명을 지녀야만'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ㄱ선지의 역인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개체는 생명을 지니고 있다'도 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거야. 생명을 지니는 대상은 무생물을 제외한 존재이기 때문에 테일러, 칸트, 레건이 생각하는 도덕적 지위의 대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어.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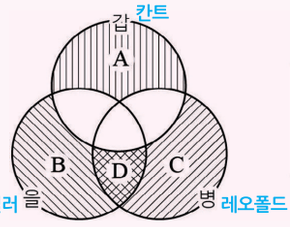
(가)

갑 칸트 (단서):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이외에 다른 의무를 갖지 않는다. 늙은 말이 수행한 봉사에 대한 감사마저도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 인간에 대한 의무만이 직접적 의무

을 테일러: 인간에게 도덕적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생명체가 지닌 목적 추구 능력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고유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인다. (단서) →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의 생명체 존중

병 레오폴드: 인간은 대지를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남용하고 있다. 대지를 우리가 속한 생명 공동체로 바라보면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게 될 것이다. (단서) → 도덕적 고려 대상을 대지로 확장

(나)



〈범례〉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기]

ㄱ. A: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갑(칸트),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공통 입장

ㄴ. B: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차이점

ㄷ. C: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병(레오폴드)만 무생물을 도덕적 존중 대상으로 봄

ㄹ. D: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갑(칸트): 오직 인간만 도덕적 지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단서+발상

단서 **갑**: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
을: 생명체, 고유의 선
병: 대지, 생명 공동체, 사랑과 존중

발상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이다.

KEY 테일러, 레오폴드 등이 식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한다고 해서 식물의 이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 문제 풀이 순서 |

step 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파악한다.

1. 갑은 칸트이다.
- 칸트는 동물에 대한 감사와 같은 의무는 직접적으로 볼 때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 칸트는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이므로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만이 성립한다고 본다. 인간 외의 존재들과 관련해서는 간접적 의무가 성립한다.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옳지 않은 까닭은 그로 인해 동정심이 약화되어 인간 자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2. 을은 테일러이다.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지니며 자신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성장, 번식 등 저마다의 목적을 지닌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본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3. 병은 레오폴드이다.
- 레오폴드는 대지를 한낱 상품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바탕으로 우리 자신이 속한 생명 공동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레오폴드는 인간을 대지의 지배자가 아니라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하며, 대지를 한낱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도덕적, 심미적 관점에서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step 2 〈보기〉의 내용이 (나) 그림에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판단한다.
- ㄱ의 내용이 갑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ㄴ의 내용이 을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ㄷ의 내용이 병만의 입장인지 판단한다.
- ㄹ의 내용이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인지 판단한다.

| 보기 분석 |

ㄱ. A: 인간이 식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
- 갑(칸트)은 식물이 도덕적 지위를 갖지 않으므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생존을 위해 식물을 섭취하는 것처럼 식물을 이용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대지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대지를 한낱 자원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된다.

✱ ㄱ은 갑(칸트), 을(테일러), 병(레오폴드)의 공통 입장이므로 A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B: 모든 생명체와 달리 생명 공동체 그 자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
- 갑(칸트)은 모든 생명체와 생명 공동체 모두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만 생명 공동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생명체뿐 아니라 생명 공동체도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ㄴ은 을(테일러)만의 입장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유기체가 아닌 존재도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갑(칸트)은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 중에는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없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오직 생명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유기체가 아닌 무생물도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꿀팁

✱ ㄷ은 병(레오폴드)만의 입장이므로 C에 해당한다.

ㄹ. D: 동물은 도덕적으로 무능력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
- 갑(칸트)은 이성을 소유하지 않은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 을(테일러)은 동물이 도덕적으로 행위하지 못하더라도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병(레오폴드)은 동물이 대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 ㄹ은 을(테일러)과 병(레오폴드)만의 공통 입장이므로 D에 해당한다.

✪ **정답은 ⑤ ㄴ, ㄷ, ㄹ이다.**

오개 **틀렸나?**
테일러나 레오폴드도 식물의 이용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님을 몰랐다면 정답을 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1회 연도별 모의고사 2024 실시 3월 학력평가

1회 01 정답 ④ ✱ 기술 윤리학과 실천 윤리학 ·· [정답률 88%]

| 선택지 분석 | A 07 해설 참조

① 삶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덕 원리 탐구는 이론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②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는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③ 도덕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의 의미 분석은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④ 실천 윤리학은 윤리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 성립 가능한 도덕 원리를 탐구하여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⑤ 도덕 추론 과정의 타당성 논증은 메타 윤리학의 핵심 과제이다.

1회 02 정답 ② ✱ 에피쿠로스와 석가모니 ··· [정답률 72%]

| 보기 분석 | F 07 해설 참조

ㄱ. 갑(에피쿠로스)은 인간이 자신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본다.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ㄴ. 을(석가모니)은 중생이 열반에 이르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함정
ㄷ. 을(석가모니)은 불멸(不滅)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생사가 반복되어 끊임없이 고통받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ㄹ. 갑(에피쿠로스)은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구성하던 원자가 개별 원자로 흩어져 사라진다고 본다.

1회 03 정답 ④ ✱ 평화에 대한 칸트의 입장 ····· [정답률 53%]

| 선택지 분석 | Y 08 해설 참조

① 칸트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환대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환대권은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며, 이방인이 평화적으로 행동할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함정
② 칸트에 따르면 평화 조약은 모든 적대 행위나 전쟁의 종식이 아닌 적대 행위의 한낱 일시적 중지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기 어렵다.
③ 칸트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방어적 목적의 전쟁을 인정한다. 또한 그는 상비군을 점차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방어적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꿀팁
④ 칸트는 국가 간 평화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국제법과 세계 시민법을 강조하였다.
⑤ 칸트에 따르면 국제 연맹은 주권을 지닌 국가들의 연합이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은 국제 연맹에 양도될 수 없다.

1회 04 정답 ③ ✱ 롤스의 시민 불복종 ····· [정답률 47%]

| 보기 분석 | N 36 해설 참조

ㄱ.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부정의한 법과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여 부정의한 법의 변화를 도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롤스는 바꾸고자 하는 법의 처벌이 가혹할 경우 교통법규 등 처벌이 가벼운 다른 법을 어길 수 있다고 본다. 함정
ㄴ. 롤스는 다수의 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일으키면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되고, 극심한 무질서가 초래되어 체제를 파멸로 이끌 위험이 있다고 본다. 꿀팁 그래서 롤스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와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ㄷ.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유된 정의관이다.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없다.
ㄹ. 롤스에 따르면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어떤 법이 심각하고 오랫동안 부정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롤스는 어떤 법이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고 오랫동안 위배한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1회 05 정답 ① ✱ 통일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률 82%]

| 선택지 분석 | X 03 해설 참조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는 경제적 번영을, (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한다.
- X: 통일의 필요로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강조하는 정도 ⟶ 낮음
- Y: 통일의 이유로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 Z: 통일의 최종 목표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① 따라서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은 ㉠이다.

1회 06 정답 ① ✱ 장자와 공자의 입장 ····· [정답률 63%]

| 선택지 분석 | B 14 해설 참조

① 갑(장자)은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좌망(坐忘)과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심재(心齋)의 수양을 통해 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꿀팁 을(공자)은 마음의 수양을 통해 하늘의 이치이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인 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본다.
② 을(공자)은 인의(仁義)의 도덕 규범을 따르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갑(장자)은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무위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③ 공자에 따르면 인은 존비친소를 구별하는 차별적인 사랑이다.
④ 장자는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차별적 지혜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⑤ 장자는 예(禮)와 같은 인위적인 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1회 07 정답 ④ ✱ 싱어와 롤스의 원조 ····· [정답률 65%]

| 보기 분석 | Z 04 해설 참조

ㄱ. 갑(싱어)에 따르면 더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국내에 존재한다면 국내 부조가 해외 원조보다 우선이다.
ㄴ. 을(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즉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을(롤스)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가 개선되어 민주적인 정부가 수립되면 국민의 복지와 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기근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ㄷ. 을(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국내적으로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해외 원조에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질서 정연한 만민 간의 부의 수준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ㄹ. 갑(싱어)과 을(롤스)의 공통 입장이다. 갑(싱어)은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용 대비 혜택을 계산한 뒤 효율성이 과도하게 떨어진다면 원조는 중단될 수 있다고 본다. 을(롤스)은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가 개선되어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된다면 원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꿀팁

1회 08 정답 ⑤ ∗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 [정답률 78%]

| 선택지 분석 | W 02 해설 참조

① 하버마스는 담론을 거쳐 도출된 결론도 재논의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② 하버마스는 담론의 참여자가 사적인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③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 모두의 합의를 통해 타당한 규범에 도달한다고 본다.
④ 하버마스는 강제력을 동원한 합의가 아닌 담론 참여자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⑤ 하버마스는 담론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상호 주관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꿀팁

1회 09 정답 ③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 [정답률 55%]

| 선택지 분석 | H 03 해설 참조

① 자유주의에 따르면 쾌락을 위한 성적 관계도 도덕적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동의가 필요하며, 성인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등이다.
② 자유주의에 따르면 성적 관계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이 존재한다.
③ 자유주의에 따르면 출산은 성적 관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따라서 생식적 가치에 대한 존중이나 고려 없이도 성적 관계는 정당화 가능하다.
④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가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유주의, 중도주의, 보수주의 모두의 공통된 주장이다.
⑤ 보수주의는 결혼한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1회 10 정답 ① ∗ 칸트, 테일러, 레건의 자연관 - [정답률 29%]

| 보기 분석 | Q 33 해설 참조

ㄱ. 갑(칸트)은 인간만이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며, 인간만이 도덕 행위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본다.
을(테일러)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에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테일러는 동물이나 식물을 도덕 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병(레건)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존재에 삶의 주체인 1년 이상의 포유 동물을 포함한다. 그러나 레건은 동물을 도덕 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ㄴ. 갑(칸트)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을(테일러)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을 제시한다. 병(레건)은 도덕적 지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삶의 주체를 제시하며, 삶의 주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고 본다.
ㄷ. '인간의 가치 평가에서 독립하여 가치를 지닌 존재'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를 말한다. 꿀팁
을(테일러)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병(레건)은 삶의 주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따라서 테일러와 레건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를 결과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만 판단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ㄹ. 갑(칸트)은 인간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이므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을(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네 가지 의무' 중 불간섭 의무는 개별 유기체의 자유를 간섭하거나 생태계를 조작, 통제, 개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즉 생명을 지닌 개체만이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의무를 말하고 있다. 함정
병(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회 11 정답 ② ∗ 요나스의 책임 윤리 ····· [정답률 77%]

| 선택지 분석 | O 20 해설 참조

① 요나스는 인류가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적 요청을 근거로 인류 존속에 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② 요나스에 따르면 현대 과학 기술이 산출하는 공포와 영향력의 범위가 매우 크고 새롭기 때문에 과학 기술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함정
③ 요나스에 따르면 현세대의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은 호혜적인 책임이 아닌 일방적인 책임이다.
④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책임져야 할 대상에는 비이성적 존재, 즉 생태계가 포함된다.
⑤ 요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미래 예측 능력, 도덕 판단 능력, 타자를 고려하는 능력 등을 지니므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인간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진다.

1회 12 정답 ① ∗ 칸트의 사상 ····· [정답률 79%]

| 선택지 분석 | C 03 해설 참조

①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내지는 의무 의식이 동기가 된 행위가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②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제시할 조언이다. 칸트는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도덕적 의무의 실천을 강조한다.
③ 자신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라는 조언은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조언이므로 칸트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덕 윤리 사상가가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⑤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하는 밀이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이다.

1회 13 정답 ③ ∗ 루소와 로크의 사회 계약 ····· [정답률 45%]

| 보기 분석 | M 23 해설 참조

ㄱ. 갑(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는 공동체의 공공선을 지향하는 의지이며, 일반 의지는 개별 구성원의 사적인 욕구나 이익을 넘어서는, 공동체 전체의 복지와 이익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갑(루소)은 일반 의지는 항상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 의지라고 본다. 또한, 갑(루소)은 일반 의지가 개인의 사적인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는 개별 의지와 달리 공공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며, 언제나 도덕적으로 옳은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꿀팁
ㄴ. 을(로크)에 따르면 재산에 대한 권리는 자연법적 권리이므로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지녔던 권리이다. 함정 을(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연법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는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해결할 확립된 법률이나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을(로크)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 어렵고 개인의 재산도 안전하게 보존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법의 집행권을 공동체에 맡겨 자연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더 잘 보호받기 위해 정치 사회를 형성한다고 본다.
ㄷ. 갑(루소)과 을(로크)은 모두 사회 계약이 계약 참여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로 성립한다고 본다. 그러나 갑(루소)과 을(로크)는 모두 사회 상태에서의 법률 제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꿀팁